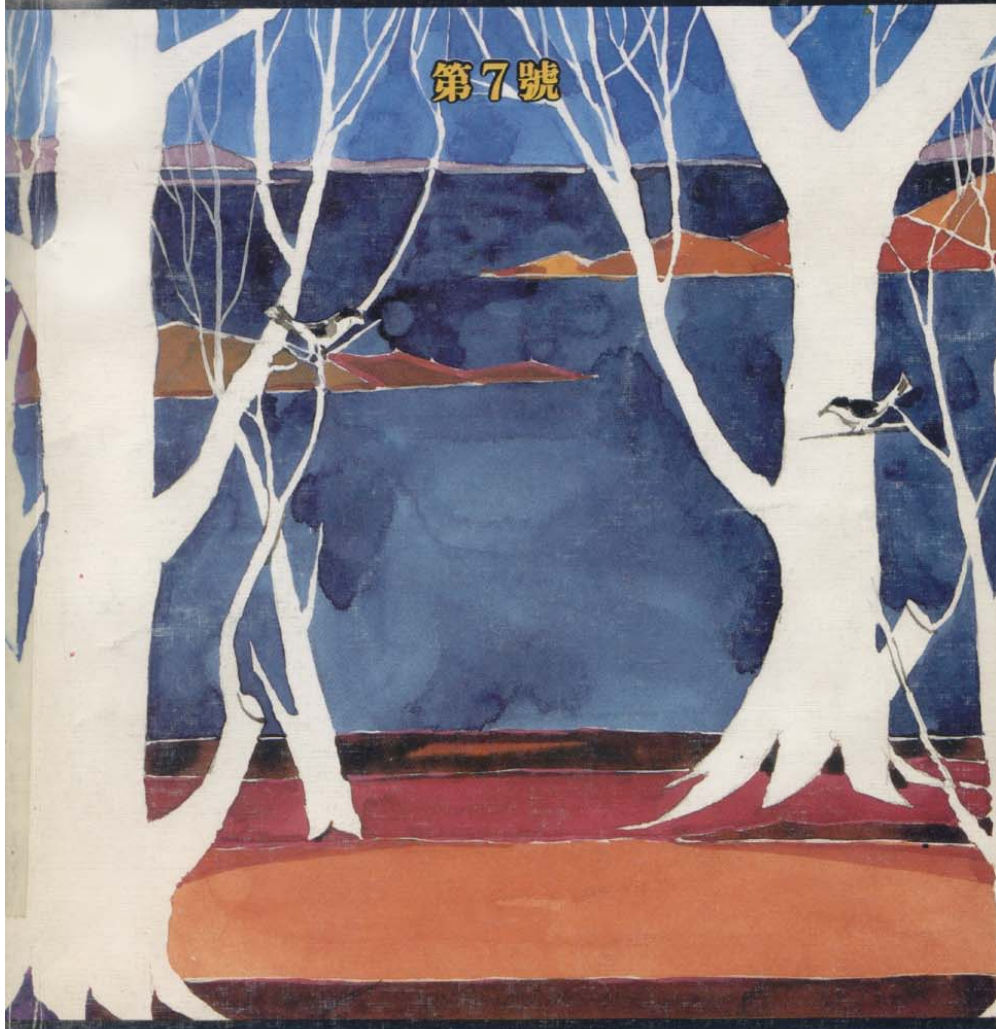


羅 斯 旅

第7號



横城文化院

旋斯夏

(第7號)

橫城文化院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 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正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차례

발간사

황성문화원장	한중희/11
황성군수	김세기/12
경찰서장	전용찬/14

논단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김훈동/17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조태진/2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영진/23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유장희/25
국민학교학생들 얼마나 매를 맞은 일이 있나?	이윤호/27
교양을 위한 한시습작	최성침/30

시

비어있는 집	이연승/36
동해휴게소에서	곽영기/43
한순간 나 기러기되어	곽영기/44
가을의 유혹	김양수/48
느티나무	강정식/49
한줌의 흙이 되어	강정식/51
코스모스	김기원/53
大同耽羅	김기원/54

수필

땅뻗기.....	권용환/56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권용환/58
소사 휴게소.....	임교순/63
잠 못 이루는 밤에	최증식/65
파리	백영호/67

만평

낙수대의 참물맛.....	조상현/70
---------------	--------

일기

동해안 일기.....	김양수/72
-------------	--------

소설

바우	정재영/75
----------	--------

특집

횡성우밀 어러리 타령	97
-------------------	----

학생문예

봄비	용둔국교 1년 박설화/102
산	성북국교 6년 정재금/103
산	횡성국교 6년 김태수/104
이름없는 산이여	우 천 중 3년 엄주현/105

밤거리	대동여중 3년	안선희/107
그 길로	둔 내 고 1년	원철호/108
꿈	안 흥 고 3년	이은경/110
어머니	우천국교 5년	이혜정/112
어머니	횡성국교 6년	정소현/114
어머니	성북국교 6년	윤인아/116
어머니의 생신	청 일 중 2년	조정숙/118
우정의 병문안	우 천 중 3년	홍금자/120
어떤 만남	안 흥 고 3년	김미숙/122
가을날의 소나타	횡성여고 2년	김남희/124
문화원행사		127
임원명부		131

화보



청소년 백일장 중등부 학생들의 글짓기 장면



청소년 백일장 입상자 시상식 장면



청소년 시쟁대회에 참가한 초등부 학생들의 그리기 장면



어린이 동화대회 구연장면



단오절 민속행사에서 개회사를 하는 한중희 원장



단오절 민속씨름대회에서 경기하는 장면



단오절 민속그네대회에서 경기하는 장면



청소년 문학 강좌에서 강의하는 김정기 부원장

地方自治時代를 맞으며



文化院長 한 중 희

그토록 바라던 地方自治時代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간의 經輪을 내고장 發展에 쏟아보고자 出馬의 準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強한 愛郷心과 폭넓은 敎養, 그리고 專門의 知識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當選되리라 믿습니다.

해야 할 일 또한 많습니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분야에 그분들의 손길이 고루 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時點에서 生覺해 보아야 할 重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간의 政策들이 政治, 經濟面에 置重된 나머지 지나치게 社會, 文化面에 소홀해짐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社會混亂과 文化的 混濁을 가져왔다는 事實입니다.

이제 展示의 行政이나 순간적 業績으로 認定받으려는 政策을 펼쳐보려는 時代는 지나갔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아니하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듯 精神的, 文化的 바탕이 튼튼해야 살기 좋은 내고장을 이룩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장을 이끌어 갈 選良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理解하시고 橫城文化發展에 보다 많은 觀心과 聲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文化를 아끼고 發展시키려는 많은 분들과 함께 크게 期待를 거는 바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문화원에 거는 기대



황성군수 김 세 기

2000년대를 준비하는 시대인 90년대의 첫해인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을만 한 한해였다. 특히 문화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관의 준공이 그러했고, 제8회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밀 어러리 타령”이 정상을 차지하여 이대회 두번째 걸쳐 우리고장 전통예술의 진수를 펼쳐 보인것은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수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국태민안과 시화년풍을 노래하며 국민의 화합을 다지는 향토문화 축제인 태풍문화제를 해거름한것은 문화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어서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군민 모두의 정성어린 노력에 힘입어 수마가 할퐁 상처도 어느정도 치유되었고, 군민을 위로하기 위해 조출한 군민노래자랑을 개최한 바 있으나, 어사매 지면을 통해 혼연일치된 군민의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어사매 제7집을 내기까지, 그리고 문화관 개관이 있기까지, 또한 크고 작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메말라 가는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예에 대한 높은 안목과 성숙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워온 황성문화원과 문화계 인사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는 이른바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으며, 이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의 진입에 있어서 문화예술계에 맞겨진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일찌기 문화와 예술이 생활화 되어 있는 서구인에게 있어서 민주화나 지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처럼 민주와 자율이 무질서나 방종,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전락한바나 도시와 농촌의 극심한 문화격차로 갈등을 겪었다는 예는 들어 본 바가 없다.

오천년 찬란한 역사와 유구한 문화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불행히도 그 백의민족의 순결성이나 동방예의지국의 도덕성, 마을마다 상부상조해오던 자조성도, 분수를 지키던 선비정신도, 어느것 하나 모두가 어디서 어떻게 단절되었는지 모르지만

일찌기 타고르가 설파했던 동방의 등불이란 찬사 마저 부끄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고뇌스럽다.

우리내 본래의 착한 성품, 근면하고 협동하는 심성, 도덕과 윤리를 인간의 가치로 알던 고고한 민족정신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을 생각 해보고 또 지방화나 지자체의 중심점이 될 지역 전통성을 재정립 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의 기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짧은 기간에 단시일내에 이 모두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소외받고 있는 풍토에서 문화원이나 문화계 인사들로는 역부족일지 모르지만 민주화나 지방화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도기 현상으로 또 문화원이 꼭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사명감으로 지방민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새로운 의식정립을 통해 선도자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문화원 본연의 입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확대와 향토 민속예술의 발굴계승은 물론 찾아볼수 없는 농촌 문화의 개척등을 통해 군민의 수준높은 문화의식을 창출하며 이를 통하여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갖추고 지방화나 자치시대에 있어서 스스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질과 향토애에까지 일깨워 줄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군민 모두가 지방문화 발전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군민과 더불어 문화계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며 성원을 보낸다. 아울러 우리 횡성의 문화발전을 기대한다.

황성에서의 다짐



황성경찰서장 전 응 찬

I.

내가 황성으로 오던 날은 흰눈 덮힌 산과 들이 햇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였다.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달리는 차창밖을 보면서 탁하고 우중충한 서울을 벗어나 내
고향 강원도로 가고 있다는 즐거움.
고향 냄새를 음미하듯 꼬불꼬불 국도를 달리면서 아련한 그리움같은 감미로움이 울컥
내마음을 적셨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치악산 봉우리가 보일듯 말듯 가깝게 느껴지는 황성.
삼마치 고개를 넘어 감회어린 마음이 옛날 영서와 영동을 이어주는 서울과 강릉을 오갈
때 이곳에서 잠시잠시 쉬어 스쳐가던 기억 조각들이 이곳 황성의 치안 책임자로 돌아오게
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엄숙한 사명감과 함께 교차되어 마음을 짓누른다.
허나 고향 산천은 마음의 안식처인가! 그동안 서울에서 엄청난 격무와 사과탄까스에
찌든 마음이 흰눈과 같이 맑아 옴을 느낀다.

II.

새벽공기를 가르고 딱딱하게 언 빙판을 밟으며 목욕탕으로 향한다.
차디찬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상쾌함을 더해주는데,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살찌우고 사색
의 공간속으로 데려다 주는 유일한 장소, 목욕탕으로 가는 버릇이 이곳에 와서도 나를 멈추
게 하지는 못한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심도 좋을텐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설계해 본다.
허나 깨끗이 자기 몸만을 닦을 줄 알았지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린 1회용 칫솔, 그리고
면도기, 쓰지도 않으면서 줄줄 흐르는 수도꼭지.
현대를 1회용 시대라고 하였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버릇 들여진 과소비 풍조가
이곳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기만이 편하고 자기만이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오늘날 방치한 대로변의 자동차 행렬-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이곳 횡성에서도 예외없이 앓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착잡함에 잠겨본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거나 무심코 넘겨 버릴 수 없는 것 또한 직업의식 탓일까?

과소비와 퇴폐 향락풍조, 한탕주의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와 어울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기계문명과 홍보매체로 인해 주민 의식 수준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없어졌다.

농촌이 과학적이고 문화 수준이 높아져 도시 못지 않는 생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게 된 점은 문명의 고마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배워서 안될 사치와 퇴폐 문화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도시를 동경하게되고 물질 문명에 멍들어가고 있는 실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향이란 마음속에만 있다면, 고향을 지키고 가꾸려는 애향심이 곧 애국심이라고 할 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관청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나온 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며 내일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횡성이 옛날 애국의 고장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정부를 매도하고 경찰을 왜경인냥 오인하여 저항하고 무질서를 자행하는 것이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듯 날뛰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물지각한 이들에게 선량한 농민이나 읍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해야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할 때가 있다면 치안행정을 담당할 내가 해야할 일은 자명(自明)한 것이다.

부엌계 서린 수증기 속에서 아직은 낯설지만 내 이웃인 횡성인을 위해 경찰관의 임무인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 치안 정보의 수집
- 교통 단속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

그래서 양같이 선량한 주민에게는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생활을 보호하고 독버섯같은 질서 파괴자와 폭력과 범죄꾼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으로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횡성 지역의 평온은 강원도 일원의 평온이요 나라 전체의 평온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주민과 가까운, 주민을 평안하게 하는 봉사하는 경찰로서, 그리고 매사 일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분명한 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리라.

III.

사무실에서 내다 보이는 세상 모두가 하얗다. 올 겨울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는 탓일까 아니면 도시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 산천이 눈길만 돌리면 나를 반기고 있는 때문일까.

“어사매” “엇매”

너무나도 멋지고 시적인 옛 횡성의 지명을 마주하고 우리 조상의 멋과 삶의 지혜에 다시 감탄을 금치 못한다.

횡성은 애국의 고장이며 다른 고장에 서 볼 수 없는 특유 문화 예술의 고장이다.

치악산과 태기산의 기상과 유유히 흐르는 섬강의 정기를 이어받아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곳이기도한 고장.

이와같이 면면히 이어오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횡성에서 횡성인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경찰관으로서의 내 임무를 다하며 이 고장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무질서와 범죄의 도전에서 반드시 이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풍수원에서부터 서원, 공근, 갑천, 청일, 안흥, 강림, 둔내. 그 높은 산중턱 나무 한그루까지도 내 마음의 다짐이 다하도록 뛰어 보리라.

그래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으로 질서의식과 윤리의식이 풍부하던 옛 인심이 되살아나 횡성의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인정스러운 사회가 될까?

괴테는 “꾸준히 노력하는 者만이 幸運의 女神을 所有할 수 있다”고 했듯이 난 다시 이곳 치안 책임자인 내 자신으로 되돌아와 개인의 행복, 가정의 평온, 직장의 화합, 국가의 번영이 모순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실천 논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고장이 범죄와 폭력이 없는 마을, 질서있는 마을, 일하는 마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農協中央會橫城郡支部長 金 顯 東

1. 지자체(地自制)와 농민

국회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 관련법들이 통과됨으로써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그러나 지방분권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아직 그 실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말이나 4월초에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나 92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인 시장·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을 뽑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농민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자체는 본래의 뜻 그대로 명실상부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향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등 국정 모든 분야에 걸쳐 분산과 확산을 통한 재편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의 획일적·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지금부터

- 자치제 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질 것인가?
- 어떤 인물들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가?
- 그 입후보자가 과연 지역발전과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할 인물인가?
- 이들 지방유지들의 영향력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정치풍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자치제의 실시는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의 선거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권 권력관도와 정치 문화, 행정 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살림」을 자치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의 의미와 효율성을 최대로 살려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2. 농민과 농협

공업과 농업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농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 형을 초래하여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한 이농이 촉진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농가인구는 1970년의 절반도 안되는 67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가 인구중 13세이하의 어린이들은 70년의 43.5%에서 89년에 19.4%로 대폭감소하고 같은 기간중 50세 이상의 노령층은 15.6%에서 35.1%로 늘어났으며 50세 이상의 여자 비중이 70년의 7%에서 20%로 늘어나 노령화·부녀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농민들의 단체인 농협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61년의 종합농협 출범후 농협은 격변하는 정치·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대변을 위해 안간 힘을 다 해음으로써 점차 농민의 구심체적 위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우선, 조직면에서 60년대의 이동조합 설립촉진을 시발로 조직기반을 정비하고 70년대에 읍·면단위로의 합병추진을 통해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비료 한 포대 농약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도 군조합까지 먼길을 가야했던 농민들이 이제는 가까운 단협에 가면 대부분의 농협일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었다.

또 70년대의 작목반조직을 필두로 마을협동조직을 육성하기 시작하여 이제 각 39,000개에 달하는 영농회와 부녀회가 조직·육성되었으며 공동출하조직 및 공동작업조직과 공동 이용조직등 생산 유통조직이 강화되어 조합원과 단위농협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 보면 농협 설립초기에는 비료, 농약, 영농자금의 공급등 정부정책 사업은

대행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상호금융, 연쇄점, 판매사업등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자체사업을 확장하면서 농민지도 교육 사업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의 실시로 농협이 농촌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촌 고리사채가 줄어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이 64년의 71.3%에서 16.1%(89년)로 감소하였으며 연쇄점은 품질 좋고 값싼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농촌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간 상인들의 공간, 세금문제등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농협의 시장점유율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농민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으로 팔아주기 위해 조직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농협의 민주화 추진

그간 농협의 조합장 선임제도는 89년까지도 여러가지 형태의 임명체제를 유지해 왔고 한국 농협의 설립과정을 반영하듯이 운영도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 출범이후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그동안 우리 농협이 농민의 의사에 의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의 자율성 확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우리 농협은 88년말 임원의 직선제 실시와 정부감독권의 완화 등을 공간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주 자율농협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고 첫 단계로 전국의 회원조합에서 농민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8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까지 1년여에 걸쳐 농민조합원은 물론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1470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선거, 그리고 지난해 4월 18일 중앙회장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선거 참여율이 전국 평균 90%에 달해 조합원의 내조합인식이 크게 고조되었다는 점이며, 조합장 이사 감사등 농협관련 경력자의 당선율이 89.6%, 당선자의 95%가 41~60세로서 조합원들이 후보의 조합경영능력을 중시하고 보수적 안정 회구성향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과거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참여율과 공명하고 모범된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농협선거의 또 다른 의미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 농협이 미리 시험대에 오른 격이 되었지만 역사와 정통성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농업생산자 단체답게 저력을 발휘하면서 잘 극복했다는 점에서 우리 농협인은 이를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임원이 새로 선출되고 체제를 정비하는등 농협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농협을 둘러싼 대내외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협 내적으로는 농민조합원들이 이제 선거에 의해 조합장과 회장이 선출되었고 자율성이 커졌기 때문에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고 무슨 요구이든 100% 들어 줄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외부에서의 농협에 대한 시각은 농협을 이해하는 쪽보다 경계하는 쪽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농협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한 농정추진체계의 지속여부를 우려하면서 자기들의 통제밖에 놓이게 되었다는 시각으로 농협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비협조적이거나 오만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88년 8월15일 농협창립 제27주년을 즈음하여

- ① 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자율농협
- ② 농민편의증대를 통한 봉사농협
- ③ 경영의 내실화를 통한 능률농협

등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새 농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농협은 농민조합원에 의하여 조합장이 뽑히고 그 직선 조합장의 손으로 중앙회장이 선출되는 농협의 선거과정이 상정하듯이 농민조합원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수렴되고 농협 운영에 반영되는 진정한 농민의 농협을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황성음장 조 태 진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6·25란 비참한 전운을 맞았고, 그후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민주화의 장이 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지방자치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당은 정당대로 지자체 시행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의 자질향상으로 법을 스스로 지킬 줄 알고, 도덕을 존중할 줄 알며 자연을 보호할 줄 아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자세를 바르게 가다듬어야하며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질 향상이 선행 되어야하며 지역주민이 단결되어야 한다.

첫째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며 이는 곧 안녕질서를 파괴시켜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내주변 가까이 있는 지키기 쉬운 것, 즉 바가지 요금 안받기, 불량식품 안팔기, 계량기 안속이기, 도로 무단횡단 안하기, 무단주정차 안하기, 공로침범 안하기, 도로에 무단적치물 놓지 않기 등 이행하기 쉬운 것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으면 불법행위도 정당한 행위인양 행동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고 보면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인군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확립해야한다.

일찌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던 우리나라가 서구 문명의 도입과 산업사회로의 변천

과정에서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무슨짓을 하든 돈만 벌면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효용”이란 매우 중요하고 그 위력 역시 대단하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리고 비 도덕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그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는가? 땅에 떨어진 도덕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서로 믿고 사는 명랑한 사회가 조성되려면 도덕성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곧 법 질서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양심과 더불어 사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셋째 자연을 보존하는데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의 혜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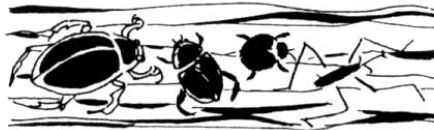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서철이 끝나면 산과 바다에는 온갖 오물과 악취로 뒤덮인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엄청난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연의 혜택을 입고 사는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오염시키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분뇨등을 마구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역시 마구 버리고 있어 환경정화 측면에서도 그 얼마나 보기 흉한 일인가?

청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쾌적한 거리 깨끗한 산하를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호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집앞 내주변은 내가 청소한다는 자세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비가연성 쓰레기는 매장하여 관리할 때 비로소 오염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연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하는 것이다. 우리모두 애항심을 갖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땅, 미래가 약속되는 황성을 건설하는데 다 함께 참여해야겠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황성청년회의소 회장 민 영 진

교육자치를 통한 교육은 인간화 이념 내지 민주 이념을 그 목표로 함은 물론 이러한 목표를 위한 교육, 교육행정, 학교단위교육 그리고 행정의 민주화·자율화·전문화·창의성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마치 이와 입술처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녀야 할 자치의식으로서 주인정신·시민정신·지역공동체 의식·자유 및 평등정신·공공정신·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했거니와 이러한 자치의식은 교육을 통해 더욱 함양될 수 있다. 교육자치에 의한 교육은 지방고유의 역사·전통·문화·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존·전승·습득을 가능케 하는 바, 이로써 주인정신·지역공동체 의식·향토의식 증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교육욕구 충족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욕구충족의 하나로서 이는 교육가치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물론 학교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지만 나아가 평생교육 내지는 사회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의 목표 및 과제는 교육의 자율성 및 창의성 발휘·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지역의 특수성 신장·교육의 전문성 확보 학교단위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구축조성·탄력적인 교육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자주적 행정의 확보 및 교육의 충실화 등이다.

한국의 교육자치와 더불어 외국의 교육자치를 살펴본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교육자치체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 및 발전방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본방향 및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되는가. 이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의 목표대로 성장하는 인간 그리고 자주·자율·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갖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자치체의 커다란 목표는 피교육자의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거니와 지역공동체와 그 문화의 발전, 나아가 민족공동체와 그 문화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인류공영 즉, 평화·복지에 기여하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교육자치 제도가 결코 그어떤 이익단체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도, 정치의 무대가 되어서도, 권위주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여러 욕구의 충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민 스스로의 책임 아래 통치의 행정을 실현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즉, 주민자치는 주민의 · 주민에 의한 · 주민을 위한 통치의 실현을 의미하지만, 교육자치제도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문화원 이사·미탄중학교 교감 柳章熙



우리 橫城出身 韓錫龍氏가 강원도지사로 부임하였다. 橫城으로서는 첫 道伯을 탄생시킨 것이니 온 郡民의 기쁨이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한마당 큰 잔치라도 벌려 축하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

그분의 일에 대한 강한 執念과 誠實性 그리고 부드러운 人間味가 오늘의 영광을 가져왔으리라.

우리가 이처럼 남다른 기쁨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장이 일 할만한 사람들을 별로 輩出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行政責任者에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많은 期待와 무리한 要求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잘 아는 사람이 일할 자리에 앉으면 地緣, 學緣, 血緣을 내세워 무언가를 챙겨보려 한다. 地域全體의 發展을 위해서라면 모르되 어떤 개인의 이해 관계라면 그것은 안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일도 合理性과 妥當性을 바탕으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될 일이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또 한사람의 일꾼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서글픈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또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91년에는 地方議會가 구성된다. 흔히 地方自治時代가 열린다고 말한다. 지금 地方政界는 술렁이고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지방의회에 진출할 채비로 부산하다. 어쨌든 選良들이 가려질 것이고 議會가 구성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議員들이 지역별로 선출되고 보니 그 지역의 주민 모두가 자기지역 출신 의원이 자기

역 이익만을 위해 뛰어주기를 바랄 것이고 또 자기 개인적 이해 관계를 해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무능하다고 책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議員은 議員이 아니라 이장이나 면장마지도 못한 人物로 되어 버리게 될 것이다. 郡議員이나 道議員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는 일꾼을 길러내지 못하고 또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입 지사나 앞으로 당선될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외면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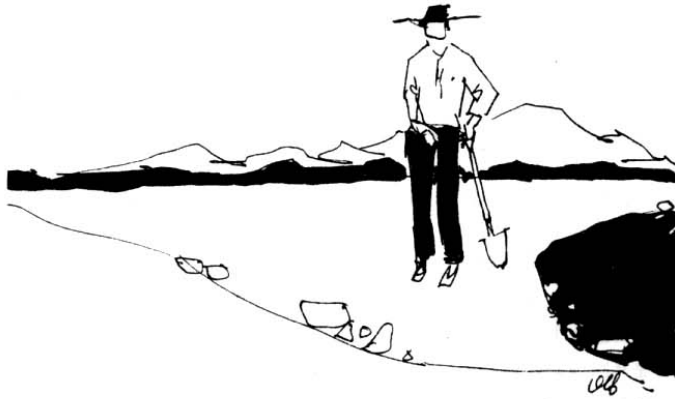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 고장에서 자랐고 이 고장에 뼈를 묻을 분들이 틀림없다면 그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所信껏 일할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하며 萎縮시키거나 곤경에 몰아넣어 그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極限的狀況이 오지 않도록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미카-터 대통령이 당선후 그의 땅콩농장이 있는 고향을 찾았을때 고향 사람들이 내걸었던 환영의 구호를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한다.

「지미, 땅콩농장은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마음껏 나라를 퍼도록 편하게 해 줄때 그들도 더 훌륭하게 될 것이며 또 고향을 위해 몸바쳐 일하게 될 것이다.



국민학교 학생들 얼마나 매를 맞은 일이 있나?

황성여자고등학교 교감 이 윤 호

학교체벌에 대한 찬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학교의 경우 한 標本調査에 따르면 약 84%(83.9%)가 선생님께서부터 체벌 곧, 물리적으로 매를 맞은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국민학교 교사 640명과 26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83:한국교육개발원).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體罰을 가하는 경우 그것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곧, 대도시 지역(人口 100만 이상)의 국민학교 교사는 79%가, 체벌을 가하고 있고 중소도시 교사는(주로 도청소재지) 85%, 농촌지역 교사는 이보다 높은 93.89%가 학생들에게 매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경력별로는 10년 이하의 비교적 젊은 교사는 89.6%가 체벌을 가하고 11~20년 경력을 가진 교사는 85.8%, 21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69%가 각각 체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력이 짧은 교사일수록 체벌을 가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사용하는 男子교사는 83%인데 비해 女子교사는 84.7%로 여자 교사가 약간 많으며 체벌을 주는 대상 학생의 유형은 授業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73.4%로 가장 많고, 시험 성적이 부진한 경우 11.9%, 싸움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8.7%, 숙제를 안해오는 경우 4%, 지시 불이행 1.7%, 지각 결석생 0.2% 등으로 나타나 체벌의 다양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과밀학급(주로 도시의 大規模學校)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가질 수 없어 위압적인 통솔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과밀학급의 통솔 방법의 하나로 체벌을 내세우고 있어 注目된다.

학교에서 체벌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 ① 아동들이 정서불안, 불만족 등으로 病的인 행동이 증가하고 ② 사회성, 협조성, 애착심 등이 줄어들며 ③ 無力感, 공포감에 의한 위기 소침한 행동이 나타나기 쉽고 ④ 저항, 반항 등 부정적 경향이 늘어나는 등 교육적으로 나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사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누구나 차별대우 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3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것”과 “공부를 천천히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각각 29.9%, 29.2%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아동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욕망을 교사가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 한 표본조사에서 국민학교 6학년 아동에게 학교에서 권장 및 금지 사항을 알아본즉, 모두 1백 96가지였으며 이 가운데 禁止事項은 83.4%인 1백 63가지나 된다고 한다.

권장 사항은 33종인 16.6%에 불과 하였던 것이다(김종서).

또한, 이 금지 사항을 학생이 어기면 體罰이 가해지며 6학년 남자 중 과거 1년 체벌을 받은 일이 있는 학생은 96.5%이고, 女子의 경우는 68.8%였으며 體罰의 종류도 27가지나 되고 있다고 한다(김종서, 潛在的 教育課程)

이와 같은 체벌은 아동들의 창의성 신장을 억누르며 오직 정해진 일을 융통성 없이 수행하는 硬直하고 閉鎖的인 인간을 육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 체벌에 따른 남·여의 반응은 서로 다르다. 가령, 여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나면 대부분의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져, 여학생들에게는 매가 오히려 교육에 逆效果를 내고 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99%가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교 2학년에 이르는 11년 동안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며, 67.8%는 매를 맞은 뒤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매를 맞았을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에 13%만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답변했을 뿐 17.5%는 “아팠다”, 15.8%는 “분하고 억울했다”, 12.4%는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10.7%는 “죽도록 미웠다”, 6.2%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4.5%는 “떨리고 무서웠다”, 2.8%는 “끔찍했다”, 2.3%는 “존경심이 사라졌다.”고 대답하고 있어 매-體罰이 교육적으로 적절한 效果를 거두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개중에는 체벌로 인해 極限狀況 곧, “죽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다.” 등 지나친 感情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학생 역시 매는 주로 授業時間에 맞았는데(78.7%), 그 중에서도 체육시간이 28.7%로 으뜸이며, 다음은 수학·영어 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를 맞은 이유를 보면 “成績이 떨어져서”가 29.8%로 가장 많고 13.7%는 “숙제를 해가지 않아서.” 13.1%는 “단체벌”로 8.3%는 “책과 준비물을 갖고 가지 않아서” 6.5%는 “질문에 답을 못해서” 5.9%는 “授業態度가 나빠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는 막대기나 회초리로 맞는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20.6%는 손으로, 15.6%는 자로, 5%는 빗자루로, 2.5%는 출석부로, 1.9%는 먼지털이로 맞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 다양한 용구(?)에 일단은 놀라게 된다.

학생들이 매를 맞은 部位도 여러 가지다. 손바닥이 44.7%, 엉덩이가 17.6%, 뺨이 10%, 종아리 9.4%, 머리 6.5%, 발바닥 4.1%, 허벅지가 2.4%였다.

매를 맞은 시기는 中學校때가 49.5%, 국민학교 때가 32.1%, 고등학교 때가 18.4%의 순.

이상의 結果를 놓고 볼 때 교사와 학생간에 신뢰관계가 成立 될 때 매-體罰이 매우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벌을 받는 이유를 납득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기분으로 매를 들어서는 안되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벌을 주어야 하며 벌을 준 다음 끝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제간의 불신감·거리감만 짙게 하며 심지어는 적대감까지 자아내게 한다.

매를 때릴때는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학생에게 체벌을 할 때는 사후라도 좋으니 전화로 연락하는 등 해당학생의 부모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부모의 협조가 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①황성·입석리

②'89년에는 '教師의 授業技術 向上을 위한 學校授業研究'와 '授業의 질을 높이는 새 授業指導'(이상 한국교육출판사), '複式教育의 理論과 實際'(文教部 장학자료 63호 집필), '複式學校의 學習指導'(강원도 교육 연구원 刊行) '90년에는 '小規模學校 少人數·複式教育의 授業技術, 教育例說選(者) 등을 刊行한 바 있다.

教養을 爲한 漢詩習作



書院面 鶴谷里 169 崔 聖 琛

나는 過去 現職에 있으면서 늘 漢詩習作에 對하여 깊은 關心을 갖고는 있었으나 作詩하기에는 늘 力不足함을 느끼고 살아왔다. 停年退任(1989. 8. 31)을 하고 나서는 漢詩야말로 教養을 통한 情緒生活에 좋은 伴侶가 될 것이라고 믿고 漢詩作法에 必要한 參考書籍을 求하기에 多少의 時間을 가져왔다. 入手한 主要參考書로는 漢詩入門, 漢詩作法, 詩海韻珠, 詩人玉篇, 詩學含英, 奎章全韻 등이 있다.

即 漢詩란 勿論 漢字로 構成하는 詩이다. 漢詩는 去令四, 五千前부터 中國에서 發生하여 왔다. 中國文學의 歷史가 詩에서 나오고 詩의 歷史는 詩經에서 四言體로 되어있다. 爵이 “詩는 言志요 歌는 永言”이라고 하여 後世사람들이 詩를 말함에 大概이 말을 引用하고 있는 것이다.

詩를 言志라 함은 自己의 마음에 느낀 感想을 表現하는 것이요 歌는 永言이라함은 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曲調를 붙이어 소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普通 말하는 漢詩란 五文字 或은 七文字(言律)로 構成된다. 人生歷程中에서 喜怒哀樂과 多情多感한 自己의 清純한 感情을 詩作으로 表出하여 或은 優麗한 自然을 鑑賞하고 送別과 慶祝을 노래하며 逆鏡과 哀悼를 詩心으로 달래며 閑適과 寂寞을 創作을 통하여 스스로 自慰하는 좋은 機會가 될 것이요 他人에게도 깊은 感銘을 주게 되는 것이다. 古來 많은 詩人들이 우리에게 慰安과 激勵을 주어진 것이다. 例컨대 잊을 수 없는 저 6·25戰後의 荒廢한 祖國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에 떠오르는 詩가 생각난다.

國破山河在 「나라는 망하여 百姓은 四方으로 흩어졌으나 自然은 예대로 남아 있고」

城春草木深 「城으로 둘러싸인 서울에도 봄은 와서 草木은 푸르고 무성하다」

詩聖 杜甫의 詩이다. 杜甫는 當時(757) 安祿山의 亂을 避하여 長安에 隱居하여 이 詩를 읊었다. 그는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으며 家族과의 離別을 슬퍼한 나머지 산새의 우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不安을 느꼈다.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그는 戰亂中流離의 悲哀를 詩心으로 달래며, 歲月과 함께 自然을 노래했다. 杜甫가 살던 盛唐時代는 漢詩의 黃金時代였다. 杜甫, 李白, 孟浩然, 王維 등이 活躍한 代表의 詩人이다.

盛唐의 詩風은 人事와 自然을 素材로 純粹感情을 吐露하여 抒情을 成熟시켰고 宋代에는 唐詩의 主情의 傾向에 對하여 人生의 眞理를 알리는 主知的인 詩風을 開拓한 時代이다. 다음은 作法에 對해 적는다.

漢詩作法略解

漢詩에는 一定한 法則이 있다. 이 法則을 잘 알아서 作詩해야 한다.

一. 字의 高低

字輿에 口或은 ()안에 東冬江支微魚虞齊佳灰眞文元寒刪先蕭肴豪歌麻陽庚青蒸尤侵覃 塩咸三〇字가 平(平聲) 나머지 上聲 去聲 入聲은 仄聲 卽 높은 字다(玉篇에서 찾아본다.)

二. 平起式 仄起式

詩의 初句 第二字가 平字면 平起式 仄字이면 仄起式이라고 한다(平 낮은字) (仄 높은字)

三. 二四不同 二六對

第二字와 第四字와는 高低不同이고 第二字와 第六字와는 平仄을 함께함.

月落烏啼霜滿天

(二, 四不同) (二, 六對)

四. 一, 三, 五字는 平仄모두 좋다.(●)

五. 孤平 ●○○●●○○●

孤仄 ○●○○○●◎ ← 韻

六. 下三連

○○●○○○……下三字平(七言의 끝三字가 平平平)

●○○●○○……下三字高 또는 仄仄仄이면 犯則

七. 蜂腰 ●●●○●●●

鶴膝 ○○○●○○○

八. 七言律詩 平起式(平韻 仄起式(平韻)

(平起式)

(仄起式)

●○○●○○◎韻	○●●○○●◎
●●○○○○◎	○○●○○◎
●○○○○●	○○●○○●
○○●○○◎	○○○○○○◎
○○●○○●	○○○○○○◎
●○○○○○	○○●○○◎
●○○○○●	○○○○○○◎
○○○○○○◎	○○○○○○◎

※(○)平 · 仄모두 좋다는 表 ○ 平 ● 仄 ◎ 韻



九. 絶句 律詩의 構成

絶句의 構成에는 起承轉結의 法則이 있다. 承句는 起句의 主意에 對하여 合調하고 轉句는 變化하면서 起句를 더 세게 살리고 結句는 起句와 連結하여 本旨를 簡潔히 맺는 것이다.

登 岳陽樓 杜甫

昔聞洞庭水	首聯(起聯) - 起	(옛날 洞庭湖에 이름만 들었는데 이제사 岳陽樓에 올라왔네.)
今上岳陽樓		
吳楚東南拆	頷聯(前聯) - 承	(吳楚의 東南쪽에 끝없이 펼쳐 있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乾坤日夜浮	(對句)	둥둥 떠 있는 것 같네.
親朋無一字	頸聯(後聯) - 轉	고향의 벗은 소식한자 없고 늙어 병든 몸이 외로운
老病有孤舟	(對句)	배를 타고 떠 도네
伐馬關山北	尾聯(結聯) - 結	싸움이 고향쪽에서 그치지 않고 있으며 기둥에 기대고
憑軒涕泗流		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

拙作(1990. 10. 27)

祝 東海市 昇格 十週年

積歲經營告昊天	오랜 歲月 경영의 結實을 얻어 東海
東都市格十週年	市昇格十週年을 하늘에 알리고
武陵深谷龍湫臥	武陵 깊은 늪에는 龍이 누워있고
望海平沙白鳥邊	望海海水浴場가에는 白鳥가 난다.
秀麗山城新世兩	빼어난 山城에는 世上을 잇는 비가 오고
紅塵外港茶生煙	티끌 港口에는 김밥은 연기가 이네
龜歌鶴舞同歡裡	거북이와 학도 같이 춤추며 노래하는데
萬戶懸燈月色連	萬戶의 등불빛이 달까지 이어졌네.

詩와 隨筆

말 없는 싸움

이 연승

순아네 닭
철이네 닭
울 밑에서
싸움을 한다.

푸득
푸득
푸드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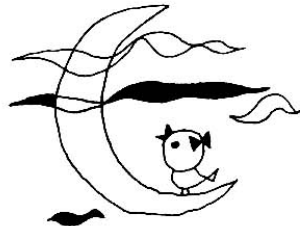
앞치락
뒤치락
싸움을 한다.

순아, 철이
모여 앉아 구경하다가

철이네 닭이 지면
철이 주먹 부르르

순아네 닭이 지면
순아 얼굴 푸르락

둘이서도
말없는 싸움을 한다.



비어있는 집①



이 연 승

정을 두고
몸만 가버린
비어있는 집

주인왔나
산새들이
보러 왔다가

해바라기
혼자서
집 보는것 보고

마음이
울썩해서
그냥 갑니다.



비어있는 집②

이 연 승

콩밭으로
둘러싸인
비어있는 집

매미들이
집 보느라
목이 쉬는데

배나무엔
배들이
통통 살찐다.



비어있는 집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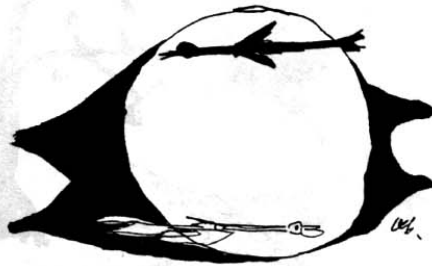
이 연 승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짜기에
주인없는 집

산 바람이
주인왔나
휘돌아 보고

산새들이
찌룩찌룩
주인 찾다가

정다웠던
얘기들만
주워 갑니다.



비어있는 집④

이 연 승

삐꾸기
울음 소리가
햇살처럼 울려 퍼지는
비어있는 집

푹어진
문구명으로
정다웠던 애기들이
살아 나오는데

주인 잃은
앵두가
저 혼자 익었다.



비어있는 집⑤

이 연 승

그리움만
남겨놓고
비어있는 집

알밤 줌던
다람쥐
마루에 앉아

주인이
돌아 오길
씩씩 빙니다.

떠난 주인
잘 살기를
손 모아 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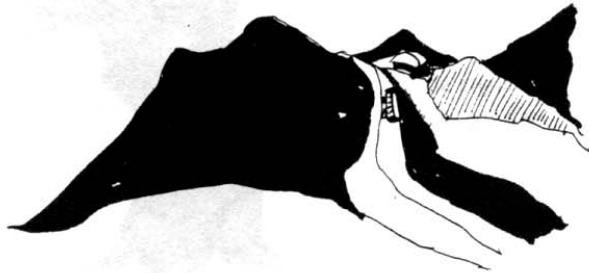
비어있는 집⑥

이 연 승

얘기를 모아
목소리를 모아
즐거움을 만들던
고개마루의 집

버스 기사
주인왔나 빵- 하고
불러 보고는

저 혼자 핀
호박꽃을 보면서
주인 얼굴 생각하며
녹음기를 튼다.



비어있는 집 ⑦

이 연 승

이 연 승

구름 멀리
사라져 간
산 비탈 비어있는 집

수많은
얘기들이
메아리로 남았는데

빈 집 찾은
매미들이
주인 못 찾아

애태우며
부르다
목이 쉰 한낮

솔바람이
빈 마당에 와
풀포기를 쉰다.



이 동해 휴게소에서



곽 영 기

삼팔 동해 휴게소에
발길 잠시 멈춘다.
물러드는
파도에 놀라
갈매기들 울어대고
생각은
실꾸리 되어
지난 일들을 풀어낸다.

내 인생 오르막 길
피곤 자주 느끼는데
저놈의
파도들은
지칠 줄 모르누나
배 한척
가물거리는
수평선에 초점을 쫓는다.

한순간 나 기러기 되어

-강릉~서울 비행기 안에서-

곽 영 기

가슴을 죄이면서
비행기에 오른다.

잠시 후 비행기는
세차게 흔들리며
앞발을 번쩍 들고
공중으로 기어 오른다.

발 밑에는 해안선의
하얀 곡선 흔들리고
십리 돌레 경포호수
거울 보다 해맑은데
둥그런 흑남색 먼 바다는
수평선을 번쩍 들어

바로 밑 잔물결 위엔
비행기 그림자가
또렷이 달리누나.

서정의 바다 위에

시정이 꿈틀대고
달리는 쾌속정에
내려뛰고 싶구나.

머리 위로 머물머흘
구름꽃 황홀하여
우리는 그곳 향해
꿈 꾸듯이 떠오르며
하늘 신비 현실이 되어
내 이마가 뜨거워진다.

굽이치는 해안선과
평면화 된 대관령에
내 몸은 중력을 잃고
기러기 처럼 떠가는데

태백의 준령들은
색동옷 갈아입고
긴장한 어깨마다
불꽃을 번쩍거리며

내게 환호 하는데
새하얀 구름들이
영금영금 기어다니며
이 불꽃들을 활아먹고 있구나.

어느새 비행기는
황성 하늘 날아 가고
어답산 봉우리는
어머님 젓무덤 처럼
내 눈을 흐리는데

뺨 같은 섬강 줄기
거미줄 같은 눈, 밭두렁
능선들과 비포장 하얀 길이
타래 처럼 엮혔구나.

어릴 때 나 살던 집은
하얀 스텝트 지붕을
강렬하게 드러내며
산 밑에 웅크린 채

깊은 잠을 자는구나.

한 순간
나 기러기 되어
고향 하늘을 훨훨 난다.



가을의 유혹



金 亮 洙

낙엽이 내게 가만히 와서
유혹을 했다.
젓가슴을 드러내놓고
요염하게 살을 비벼왔다.

빨간 심장이
너무 뜨거워서
서릿발 같은 내 눈빛도
녹아 버렸다.

낙엽 타는 냄새가
가을을 먹어치운 그 이후.

침묵처럼
하연 연기가
겨울을 모셔다 주었다.

金亮洙 / (1953. 2. 22 황성 우천 출생)

- 정금국, 원주중, 원주고, 춘교대卒
- 84. 강원일보 신춘문에 동화당선
- 84. 아동문학평론 동화천료
- 현재:춘성군 서상국민학교 근무
- 저서:〈생각하는 배나무〉

느티나무



강 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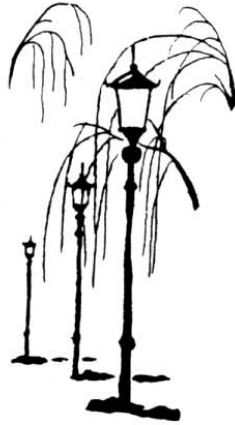
느티나무 그늘 아래
여름 보내기가 지루한 노인들이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오늘을 힘겹게 사는데
하늘을 가린 푸른 이파리들이
낙엽져 떨어지면
노인들은 어디가 설 것인가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도
넓직한 바위에 둘러 앉으면
구름방석 처럼 편한 마음에
남은 여생은 더욱 진하고

간간이 부는 실바람속에
사는 재미가 이런거라며
끝없는 대화는 오가는데
느티나무 그늘 한쪽에선
마을 애들이 소꿉장난하며
세상을 배워가고

유니크

식을줄 모르는 불별 더위를 피해
더 많은 사람들 모여도 오련만
땅버리고 도시로간 사람 많아
이제는 올사람도 없는가 보다.



- 강정식 / ○1941 황성군 공근면 출생
○상창국교, 홍천중, 농업고등학교 졸업
○1990. 월간 "한국시" 및 계간 "농민문학" 신인 작품당선으로 문단에 데뷔
○1989. 금용인 문학상 시부문 특상수상
○현홍천문인협회회원 및 농민문학 강원도지부장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 근무.

한줌의 흙이 되어

강 정 식

도시의 한가운데 어디든
세멘트 덩어리 속에
한줌의 흙
그 흙이 되기전에 누구나
사는 데만 열중해서
흙이 있는줄도 모르고 사느니

아름다운 꽃피고
가로수의성한 숲도
이 모두가 한줌의 흙의 힘인걸
낙엽이 지든 꽃잎이 지든
결국은 흙속에 섞이고

좋아 했던 사람도
내 아버지 어머니도
어렵게 사시다 육신은 흙으로 가고
혼령은 저승에서 이승을 엿보겠지.

잘살든 못살던 간에
아직까지 살아온 우리가
영원히 쉼곳은 어딘가
사는 방법 서로 달라도
언젠가는 한줌의 흙이 되어
이름 모를 풀뿌리 키울테지.



코스모스



金基元

진홍 연분홍으로
곱게 연지를 찍고
상기된 얼굴이 부끄러워
살포시 고개 숙이고
청정한 가을나들이 길에
오르신 公主님 隊列.

황새를 즐겨 닮아
다리는 휘영청 길어도
날으지 못함이 恨스러워
가냘픈 목아지를 추겨 들고
鄉想에 물든 송이 송이
지친 발돋움이 哀悽롭다.



大同耽羅

金 基 元

물길이 고담은 뱃머리에
白滂는 忽然히 잠이 드는데
칭칭 감아들린 동아줄에
바람맞이 골머리를 매어달고
웅기종기 모여앉은 草屋들은
泐泐한 눈길로 밟혀 온다.

밭끝으로 채어 덩구는
가랑잎 만큼이나 가벼운
좀먹은 검은 돌덩이들
그래서 돌담은 豐饒롭고
돌담이 長城이 雄壯한
修石의 珍景은 異彩롭다.

遠洋의 漁撈길 재촉하는
旗幅이 소리치는 하늘로
갈매기 떼 돌아 나는
甘藍빛 水平線 저 멀리
燦爛한 曙光을 이고
光明은 海心에서 솟아 오른다.

갈대 푸른 漢拏山은
고삐 풀린 牛馬의 樂園
芻食의 길목에 해 저물면
별빛에 누어 反芻하며
無盜 無乞의 極樂境을
太平聖代로 살아 간다.

달빛 포근히 짓어드는
三間草屋의 素朴한 들앞을
眞紅의 핏물지는 동백꽃
隱香이 몽클한 언저리에
군밤 익은 할망의 對話
「무사 고롬쭈까 모롬쭈라게」.

여기는 일찌기 외톨진
落後文化의 슬은 孤島
骨董品 같은 낡은 遺風이
漢拏靈峯의 그늘 밑에서
長江의 歲月을 呼吸하며
子然히 成遂한 大同耽羅.

육근 중령 예편

땅 뺏기



大東女中 教師 권 용 환

매미 소리도 지친 오후였다.
원두막 근처 신작로 미류나무 그늘에서 순심이와 연실이와 나는 땅뺏기 놀이를 하였다.
장마 끝이라 신작로 자갈길에 미류나무 그늘 길가에는 고운 모래가 고여 쌓여있다.
촉감이 시원하고 촉촉한 모래위에 1미터쯤 되는 원을 그리고 순심이와 연실이는 짧은
치마폭을 앞쪽으로 홀그러모아 접고는 쪼그리고 앉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관심도 없는 일에 순심이와 연실이는 넓적다리 깊숙히 보이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여인의 본능에서 인지도 모른다.
아주머니나 어머니 흉내를 내는 것인가?
먼 척분이 되는 순심이와 연실이는 나와 잘 놀았으며 국민학교 3학년 같은 반이었다.
왠지 모르게 순심이는 예쁘게 보였고 만나면 반나절은 재미있게 놀수 있었다. 그러나
연실이는 왠지 싫었고 미웠으며 구박을 했다. 그런데도 좀 가난한 연실이는 나를 좋아했고
나의 심부름이나 시중을 잘들어 주었다.
땅 뺏기가 시작 되었다. 셋이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한 뺨의 원을 그리어
돌리고 원과 원사이에 줄을 그어 잘라 먹는 것이다.
모래위에 그원이 너무도 예쁜 동그라미 였다.
손가락 마다의 원의 모양이 그렇게 예쁜 동그라미 일수가 없었다.
젖은 모래의 색깔과 마른 모래의 돌아간 돌림의 그모양이 아름다웠다.
한 뺨의 돌림의 원이 조금이라도 크게 하기위해 손이 찢어지는 아픔까지 겪으며 돌리느
라 몸도 반쯤 일어서서 온 힘을 다해 돌리곤 하였다.
땅은 점점 커진다.
원 안에 들어 앉으며 땅이 넓어진 것이 신명이 난다.
반쯤 먹어 들어 갔을 때는 홀그러모아 접었던 치마폭은 다풀리어 갈대로 갔기 때문에
포장 밑에 비키니였다. 그러나 보인 사람도 본 사람도 아무렇지 않았다.

점점 먹어 들어가 남은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위 바위 보를 할때 나는 항상 좀 늦은 시차로 늘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순심이 편을 들었다.
 연실이가 이의를 제기 했다.
 나는 괜찮다고 소리지르며 욱박지르고 가위 바위 보를 재촉하고 강요 하였다.
 그래서 인지 내땅이 제일 넓고 그다음이 순심이 연실이 땅이 제일 작았다.
 다시 먹자(말)치기가 시작 되었다.
 먹자를 검지 손가락으로 두번 튀겨서 자기 집으로 들어 오면 간곳 따라 금을 긋고 남의 땅을 뺏는다.
 나는 욕심이 많아 먹자를 멀리 튀기다 밖으로 나가 무효가 되어 죽기가 일수였다.
 연실이는 착실히 여러번 조금씩 하여 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땅이 제일 많아 졌다.
 나는 공연히 심술을 부리며 억지를 쓴다.
 연실이가 참다 못해 그러는게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한다.
 나는 땅이 작아져서 심술이 생긴데다 연실이가 항의를 하니까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막 차고 지우고 하여 금이 다 엉망이 되었다.
 놀던 판이 다 깨어졌다.
 순심이는 이편도 저편도 들수 없어 무츨해 있고 연실이는 매우 속상해 하며 울먹이며 일어나 쓸쓸히 집으로 가는 것이다.
 연실이는 참 속상하고 억울해서 땅만보며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한두번도 아닌 늘 그러는 편이 였으니 연실이는 지고만 사는 사람인가?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종의 속성을 지녀야 하는 것인가? 하며 다 쓰러져 가는 싸림문을 들어서면 복실이 반겨 뛰어 나온다.
 덤석안고 콧등을 핥으키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물동이가 또 땀을 흘린다. 또 비가 올러나!
 바가지로 떠서 꿀꺽꿀꺽 마셨다.
 모든것을 다 잊어버렸다.
 땀뺀기 하던 그자리가 발로 막지워버린 흔적이 말라버려 조용한 폐허가 되었다.
 한참 만에 차가 지나가고 마차(소가 끄는 우차)가 지나가고 개미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셋이서 네땅 내땅 하던것이 하나도 쓸데 없는 것이었다.
 그런걸 왜 그렇게 정말 가질것처럼 싸우고 그렇게 열심히 뺏으려 했을까?
 그렇게 자란 여자가 목영자인가?
 지주의 횡포로 인한 맺힌 가슴에 응어리를 풀기 위해 지켜왔던 어린시절 가난이 몸서리
 치지는 괴로움에 눈물겨워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목영자인가?
 90년 7월30일자 신문에 부동산(땅) 투기로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 보도된 그의 늙름한
 모습 목영자!
 서울에서 큰 병원 원장이 사람의 목숨이 귀한줄 아는것이 아니라 땅(돈)만 귀한줄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며 많은 돈을 벌고 부정한 짓을 했으니-
 2천원 짜리 의료 보험 환자가 목영자 눈에는 무엇으로 비쳐 졌을까?
 아픔이 안타까와 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만 눈에 보였을 것이어늘-
 인간애와 박애정신이 놀랍게 나타나야할 그였건만-
 땅 뺏기의 명수들 부동산 투기의 투기꾼들-
 의술도 투기로 했나?
 목영자가 죽은후에 땅뺏기는 어려서 땅뺏기 놀이와 똑 같은것이 아닌가?
 땅뺏기 하다 실증이 나면 발로 막 지워버리는 것처럼 소용 없는 일이 아닌가?
 내것 이란 어떤것인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내것인가?
 죽은 후에 땅은 5평만 있으면 죽한 것이 아닌가?
 목영자의 그 많은 돈으로 영자고아원이나 영자양로원을 최선 시설로 지어 운영 하였더라
 면 목영자는 죽어도 영자 양로원 영자 고아원은 정말 목영자의 것이 아닌가?
 영원히 정신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죽음 후에는 물질의 소유권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소유권은 영원한 것이다.
 정신적인 소유등기가 많이 난 이들 “세종대왕” “아인슈타인” “이순신장군” “페스타로
 피” “링컨” “시바이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많고 안술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목영자여!
 그대는 무지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II

대동여중 교사 권 용 환

오후의 한산무로함이 조금은 활기를 찾은 퇴근 시간이다.

예술제 의제를 골똘히 생각하며 건널목을 지나려는데

“어머- 선생님!”

하며 예쁘고 신선한 숙녀가 웃음과 부끄러움을 담은채 인사를 한다.

“어어- 콧순자 아니야!”

옆에 건장한 청년 신사가 주춤한다.

“인사 하세요. 중학교때 국어 선생님 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게 긴장한 두꺼운 상체를 끄떡한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서 웃음을 머금은 숙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다.

남편의 용모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는 그의 모습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다.

“저- 결혼 했어요.”

“오- 그래 이분이-.”

“네-”

“그래 지금 어디있어-.”

“영월에 가있어요.”

나는 남편의 직업을 묻고 싶었으나 순자의 과거가 생각나서 주춤했다.

“영월-?”

“이이가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예요.”

“아주 미남이시고 둘이 잘 어울리는데! 아주 멋져요.”

둘이는 서로 쳐다보며 어색하게 좋아 한다.

“순자는 학교 다닐때 아주 얌전하고 착하고 아주인 기였어요. 잘 위해 주어야 돼요.”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의 권위를 누리며 부탁감 칭찬을 해 주었다.

“내가 지금 회의에 가는 길인데-.”

“네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굵은 남자의 목소리를 멀리하며 헤어졌다.

혼자 걸어가며 나는 싱긋이 웃는다.

‘본능은 이성을 어둡게 하는 것인가?’

‘삶은 본능의 섭리인가?’

‘그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의 삶과 인기가 있는 영화 배우 같은 연예인 들의 삶과 베스트셀러의 소설가의 삶과 전시회에 성공한 미술가의 삶과 흠없는 대학 교수의 삶과 예리한 시각과 판단력과 앞날을 예언하는 철학자의 삶과 건전하고 성실한 어느 공무원의 삶과 기계 소리에 평생을 보내며 순수하고 단순하며 착하게 사는 기술자의 삶과 자연의 변화가 좋아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가난한 농부의 삶과 자기만을 고집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종교인의 삶과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일하는 유흥인들의 삶과…… 그래- 그래- 그래-’

참은, 진리는 신의 섭리에 지배 되는 것인가?

삶은 어쩔수 없이 다후회 한다면 다 몰수 게임 인가?

증얼 거리며 순자의 옛날 중학교 시절을 생각 한다.

얼굴은 해맑았고 해터져서(흐리멍덩하다) 얇은 이해력과 주책(주착)없는 망나니 같고 무슨 일이 있으면 호들갑을 떨고 분수와 나누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였다.

교무실에 끌려 와서는 수업 태도가 나쁘다고 손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책 읽는 것으로 만족 했던 그는 안정감이 없어 시간에 늘 딴 짓이었다.

하루는 교실 문을 들어서려는데 이상한 예감이 있어 조심하며 문을 열었다.

출입문 손잡이에 풀칠을 잔뜩해 놓고 흑판 지우개에 흰 백묵 가루를 잔뜩 묻혀 문위에 올려 놓고 끈으로 매 놓았다.

나는 손에 풀칠과 검은색 양복에 백묵 가루 세례를 받았다 아이들은 웃음 바다가 되었다. 몇 아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누가 그랬나? 공부할 생각은 않고 장난만 할려 하나?!』

『누구야 나와봐-』

편한 일이었다. 순자였다.

『손 들고 서 있어-』

그는 벌을 받으면서도 울다 웃다 몸을 비꼬다 하며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약한데가 없으며 단순하며 꾀가 없고 매섭고 앙칼진데가 없다. 나는 또 그들을 생각한다. 남편에게는 부담 없이 잘해줄것 같다.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소리 몇번 지르고 남편 가슴에 파묻혀 한참 울고나면 남편의 말 한마디에 봄에 눈녹듯 완전히 녹아 버릴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는 밥지어 도시락 맛있게 싸고 구두 닦아 나란히 놓고 문에서 로맨틱한 하루의 헤어짐에 아쉬운 출근길 보내는 아내가 될것 같다.

전세집에서 17평 아파트로 이사하는 순자의 행복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의 연속이며 복스럽게 생긴 아들을 키우기에 바쁘기 그지 없는 행복한 순자! 새 앞치마 두르고 화장을 고치는 순자! 대문 초인종에 귀를 쫑긋이 세운 순자! 퇴근시간이 가까워 지나 보다 행복한 순자의 콧노래가 내가슴에 와 닿는다. 행복한 순자!

※—————※—————※—————

나는 오늘도 교실에서 또다른 순자를 수 없이 많이 본다.

국민학교때 부터 일등만하는 교만한 문제아들 보다는 순수한 순자가 나는 좋다.

중학교 1,2학년 교실이 나는 좋다. 그 순진한 눈빛들 소박한 모습들 악함과 사기와 오만과 질투를 모르는 깨끗한 그들- 여자중학생 교실은 더욱 좋다.

장단지 살이 털오른 사슴같은 그들- 하얀 칼-라에 그늘져 깊은눈빛 꾸밈없는 깨끗함이 나는 좋다.

작은 일에 울고 웃는 그들이 좋다.

선생님의 작은 관심과 칭찬에 어쩔줄 모르며 좋아하는 그들이 좋다.

작은 잘못에 몸을 흔들며 얼굴 붉히는 그들이 나는 좋다.

셋째 딸이 좋은것 처럼 1등보다 20등정도가 좋다.

이해와 관용과 억울함을 참는 20등이 좋다.

나는 오늘도 그 순수하고 깨끗한 눈빛이 좋아 아침햇살을 받으며 검은 아스팔트 길을 달린다.

나무도 풀도 하늘도 개울도 산도 나를 반기며 맑은 아침의 신선함을 누리며 그 아름다운

눈빛을 보려고 달린다. 병아리 처럼 물려다니는 그들 그들에 쌓여 웃다보면 해가 저물어
해를 넘긴다.

20년 이상을 달렸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그들의 눈빛을 이 아침 찬란한 햇빛에 섞어
보람의 탑을 쌓으리라.

나는 또다시 태어나도 그 순수하고 영롱한 눈빛을 찾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다오!

소사휴게소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장 임 교 순

“선생님 고향이 어딥니까? 어릴적 자라던 곳을 녹화 해야 합니다.”

원주방송국 주간 치악산 프로 제작팀이 내 고향을 가차고 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고향을 이런 때에 가게 되어 묘한 마음의 충동을 느끼며 취재용 차에 올랐다.

차는 원주 고속버스 톨게이트를 빠져 강릉 방향으로 10분쯤 달렸다. 고갯길을 오르는 길옆 산골짜기 면화재의 옛길이 구불구불 내려다 보였다.

“저 길은 내가 세상에 나가는 길이였지요. 산골 촌 아이가 공부하러 대처에 나갔던 길이며 우리 어머니가 공부시키기 위해 옛 장수를 하러 나가던 길이였습니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빠르게 지나치는 옛길의 너레반석이며 성황당이며를 눈여겨 보다. 고개 밑 막장집은 흔적이 없었다. 늘 그곳에서 쉬어 넘든 정이 든 집이었는데 그 집에 살던 두 노인네는 옛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차가 소사 휴게소에 닿았다.

“여기가 내가 큰 마을입니다. 바로 휴게소 식당 자리가 우리집 우물입니다.”

취재팀이 카메라를 들고 나의 옛집 바로 마당에 이르렀을 때 나는 세월이 허망함을 느꼈다. 집은 없고 언덕으로 변해 버린데 옛날 기억으로는 내가 심었던 나무는 이미 누군가 베어내어 나무 밑둥만 썩은것이 남아 있었다.

내가 내 밭이라고 늘 소변도 대변도 그곳에 가서 보던 작은 밭에 고구마를 심었던 기억에 혼자 싱긋이 웃으며 그곳을 가 봤지만 잡초만 무성하였다.

산을 올랐다. 거기서 바라 보이는 매화산과 더 멀리 치악산이 전과 다름없이 청청했다.

“선생님이 “방울꽃”을 쓸만한 곳이군요.”

카메라는 나를 산속 마을 길을 걷게했다.

외딴 집이라 늘 동생들만 데리고 놀았던 그 지루한 봄날, 뺨꾸이는 구성지게도 울어주었다. 배가 고파있던 기억, 꽃을 꺾어 동생을 달래던 기억, 우물에 가서 물을 들이킬때 우물 속에 빠져있는 흰구름을 봤던 기억이 이제 어른이 되어 고향을 떠나 살면서 어릴적 기억을 모두

아름답게만 여기는 향수어린 마음에 소리치며 달려가는 고속버스를 바라 봤다.
휴게소에는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솔마을 지금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우리집 행랑이 보이던
솔마을
떠나 살다보니
고속버스 휴게소가
들어섰네.

강릉 가는 사람들
서울 가는 사람들
잠깐 쉬는 새
오줌 누고
커피 마시고
손뼉치며
엉덩이 출추며
떠나버리네
솔마을 지금은—

이런 동시가 생각났다.

녹화가 끝나고 휴게소에 들리니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물건 파는 아가씨들과 음료
수와 간단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 뿐. 옛날, 나를 알아 볼 사람이 없어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듯 허전한 마음으로 취재차에 올라 원주로 돌아왔다.

임교순 / 출생지: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태오지

경력:7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74년 강원도 문화상 수상

81년 현대 아동문학상 수상

83년 강소천 아동문학상 수상

현재: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장

잠못이루는 밤에



황성우체국장 최 증 식

창밖에는 마지막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듯 때늦은 귀뚜라미소리가 굳게 닫힌 창문을 꿰뚫고 세파에 때문은 꺾가를 구슬프게 두드리는 어느 늦가을밤, 하루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사색에 잠기어본다.

태고의 늪에서 까맣던 밝은 햇살을 본 지가 바로 엇그제같은데 어느덧 인생의 반을 지나 마흔을 넘어서게 된 지금.

몇년전만 하여도 까맣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하나둘 흰머리가 제법 많은 백발이 되었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길게 그어지는 것이 마치 살아온 연륜을 나타내듯 인생의 황혼을 맞는 것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창밖의 은하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갈등과 번민속에서 지내온 수많은 시간들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희미하게 뇌리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지난 사십여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순간순간을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다짐들, 그것은 나자신을 속이지 않고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주지말며 또한 내주위 모두에게 믿음을 주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뚜렷하게 가슴에 남는 일조차 한것이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자, 나의 소망과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것같은 허망함이 온몸을 적셔왔다.

일순간의 안락과 쾌락을 위하여 발버둥쳐왔고 남보다 나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줄달음쳐왔던 지난 세월들, 그리고 한 때의 욕심으로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다른이들과 같이 권위를 탐내려고 하였고 부귀영화를 꿈꾸었고 모든 것을 마음과 뜻대로 허세를 한껏 부려보려고도 하였던 부질없는 생각들.

한없는 소유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허둥대며 보내온 지나간 일들 모두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반성과 후회로써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후회로써 한숨만 쉬며 보내야 할 것인가! 새삼 내 자신에게 반문하며 새로이 다짐해본다. 이제

라도 진정한 삶을 살아보리라!

지금부터라도 내주위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새기며 현실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며 좋은 것만을 말하며 비록 오늘은 괴로움과 슬픔이 주어진다해도 내일은 웃을 수 있다는 -뜻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현재는 만족할 수 없다고하여도 희망의 미래를 생각하며 견디리라.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내주위를 작은 만족보다는 온누리의 평화를 가진 자에 대한 욕망보다는 못가진자에 대한 외로움을 가슴에 새기며 진정 후회없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리라.

지난날의 곤경과 부족함일랑 흐르는 시냇물에 흘려보내고 미련과 아쉬움도 파도속에 묻어버리고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작은 나만의 꿈을 실천해 가리라. 내일은 좀더 보람있고 뜻있고 알찬 생활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잠을 청하여 본다.



최중식 / 출생지: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36

생년월일: 1949년 1월 19일생

경력: 1969. 8. 11 강릉우체국에 신규임용

1987. 1. 21 행정사무관에 임관

동해우체국 업무과장

1987. 12. 2 부처

1990. 2. 18까지 평창우체국장으로근무

1990. 2. 19 부터 현재까지

횡성우체국장으로 근무

파 리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백 영 호

앞마당 울타리 밑에 알알이 빨강게 달린 파리를 바라보며 40년전 내 어릴적 생각에 젖어 본다. 6·25때라 모든것이 폐허된 속에서 장난감 이란 생각도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

모든것이 폐허와 삭막한 속에서 알알이 굵게 익어 달린 파리가 어찌나 신기하고 탐스럽던지 가슴까지 찡해지던 시절.

파리 하나 만들면 며칠은 불며 가지고 놀수 있었다.

빨리 만들어서 불 생각에 말랑 말랑하게 만져서 꼭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마음만 급했지 왜 이렇게 꼭지가 안떨어지며 자꾸만 찢어지던지.....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밤이면 조그만 종지에 물 떠다 담가놓고 아침이면 누가 가지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머리맡부터 쳐다보던 시절-

옆집에 살던 춘덕이라는 여자애는 기운은 세나 성격이 급하고 남자 같아서 만들적마다 찢어져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 기운 약한 나는 매번 빼앗기고 당하기만해. 너무도 억울해 밤새 잠못이루고 새벽부터 쫓아가 울면서 싸워 뺏아오니 여자가 새벽부터 남의집에 가는법을 어디서 배워왔느냐며 어머니한테 꾸중들던일.....

지금 생각하면 파리 하나에 온 정열을 쏟았던것 같다.

왜. 그렇게 파리 하나에 연연 했는지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소식 모르는 그 춘덕이도 지금쯤은 중년의 여인이 되었겠지.....

옛것에 대한 향수가 요즘 들어 부쩍 늘어가는 것은 자꾸만 늘어가는 나이 때문일까?

어머니가 보슬 보슬 말린 봉숭아 꽃과 잎에다 백반과 소금을 넣어 곱게 뺨아 밤이면 손가락에다 굵은실로 곱게 싸매어주시던 봉숭아 물들이기 아침이면 빨강게 물들은 손톱이 어찌나 예쁘고 신기했던지 손톱만 쳐다보며 다니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 내려다보며 울먹이던 일.

파리와 봉숭아의 색깔이 어렸을적 부터 곱게 보였던것은 정열에 빨간색을 좋아하는 지금

성격의 시초가 아니었다 생각한다.

조그마한것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던 마음을 손주들한테 이야기하면

“에이 할머니는 백화점 가서 사면 되잖아요” 한다.

“슈퍼 가서 사도 돼요”

돈이면 무엇이든 다 살수있고 부모한테 이야기 하면 뭐든지 가지고 싶은것은 다 가질수 있는 특권이랄까 가진양 요즈음 아이들은 귀한게 없다.

이번 추석때 서울에서 온 손주 손녀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옛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파리 이야기를 해주며 하나씩 만들게 했다.

“할머니 파리가 뭐하는 거예요.”

올해 국민학교 3학년 짜리 손주가 묻길래

“입에 넣고 소리가 나게 부는거란다.”했더니

“에이 껌 씹지 뭐”

“할머니 풍선 껌도 있고 잠 올때 씹는 껌도 있어요” 한다.

옛날 할머니들 시집살이 하시던 이야기를 해주며 장님노릇 삼년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 그렇게 보면서 못보는 척 들으면서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들은척 말 하면서도 어른들의 야단에는 말 못하는 척 그렇게 사시면서 그 병어리 삼년에 속하는 화풀이로 파리가 해결해 주는 장난감으로 쓰였다고 하니

“왜 그렇게 살아요. 참 이상하다 저희들끼리 쑥떡 쑥떡 하더니 설명해 주는 할머니의 정성이 눈에 보였던지 그래도 조금은 수궁을 하는 눈치였지만 반신 반의였다.

그리고 파리는 기침을 하고 감기 걸린 사람들이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여 먹으면 좋은 약이 되며 파리에서 나오는 씨와 진액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니 만들면서 먹어보라고 하니 입에 대었다가는 쓰고 시고 무슨맛이 이러냐고 하더니 정말 감기에 좋으냐고 반문하며 TV에 나오는 감기약 보다 더 좋으냐고 되물었다.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TV에서 나오는것은 모두 다 진실로 생각하며 믿을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과 아픔을 느끼며 봉숭아꽃의 절개와 우리 옛것에 대한것 한복을 바로 입는법

어른들께 인사 하는법 어른들한테는

“밥 잡수세요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진지 잡수세요” 하는법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할머니 집에 내려온 손주 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와 우리 할머니 척척박사네”

만 손주녀석의 칭찬에 온 식구가 한바탕 웃었다.
문명의 발달로 모든것이 기계화로 편해진 요즘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 주의의 현실
에 자꾸만 잊혀져가는 옛것들이 아쉽기만하다.
오랫만에 모든것 다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파리 하나 만들어 볼 생각에 말랑 말랑하게
만들면서 어렸을적 그 옛날에 불렀던 파리 노래를 불러본다. 빨간 파리 입에 물고 뽀드득
뽀드득 동글 동글 굴리 다가 뽀드득 뽀드득.



백영호 / 43년 서울에서 출생
4형제의 어머니
가는정 오는정 회원

落水台的 참물맛



양구부군수 조 상 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인간생존의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요즘, 이렇듯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물의 오염이 이제 그 도를 넘어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상수원(上水源)마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신문보도에 접할 때 마다 나는 지난 여름 모처럼의 등산길에서 떠 마신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상쾌했던 그 날의 꿀맛 같던 물맛을 떠올리곤 한다.

——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통 숲으로 뒤덮인 토끼 길을 헤치며 쉬어쉬어 당도한 태기산(泰岐山) 중턱에 있는 낙수대(落水台). 그러니까 지난날 갑천면 땅이 던 청일면 신대리(新垈里) 안막 노송(老松)과 바위와 관목이 어우러진 절벽 사이를 가르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저만치 두고 찾아 낸 바위 째 샘터에서 갈나무 잎 꼬깔을 집어 떠마신, 이(齒)가 시릴만큼 차(冷)고 달고 그 뒷맛이 산뜻했던 한 모금의 물맛.

이 세상 그 어디에 이 처럼 맛 좋은 물이 또 있을까.

물맛에 대하여 일찌기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과 둘도 없는 친구였던 초의선사(艸衣禪師)는 그의 (茶神傳)이란 책 속에서 『산정(山頂)의 샘은 맑기는 하나 그 맛이 가볍고, 물 속에서 솟는 샘은 맑으면서 무겁고, 바위 속에서 솟는 샘(石澗泉)은 맑으면서 달(甘)고 모래샘(砂中泉)은 맑으면서 차고, 흙에서 나는 샘은 담백하다』고 물맛을 예찬했다.

물론 물맛에 대한 내 경지가 어찌거기에 미칠까 마는 오늘날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해서 그래도 수도물 보다는 깨끗한 자연상태의 물이 낮겠다 싶은 생각들이 이른새벽 부터 샘터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너도 나도 정수기와 생수(生水)를 찾는 이 마당에 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똥단지 같은 잠꼬대냐 하겠지만, 그 날 오랫동안 반백(頽白)이 다 된 국민학교 동창들과 어울려 올랐던 태기산 산행(山行)에서 마신 그 한 모금의 물맛은 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태고(太古)를 연상케 하는 우거진 숲 속에서 수백년이 실히 넘었을 더덕과 산삼 뿌리가 짜내는 미네랄과 온갖 영양소가 녹아 흐르는 낙수대 샘터의 그 참 물맛을 어찌 『차

고 맑고 달다』고 만 갈파했던 초의선사의 그 석간천이나 사중천 물맛에 비길 손가.

몇년 전이던가, 유럽여행 때 스코트랜드에서 맛 본 캐더린 호수(湖水)의 물맛. 세계적으로 수질이 뛰어난 조니워커와 커티삭 등의 유명한 스코치 위스키를 이 물로 빚고 있다지만 낙수대 샘물 맛에는 어림도 없었다.

지난날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목이 마르면 냇가 어느 곳에서나 양껏 퍼마실 수 있었던 것이 물이다. 더구나 물이란 임자가 따로 없고 무한한 것이어서 경제학에서는 공기와 함께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자유재(自由財)·대가 없이 구할 수 있는 재화)의 지위를 차지 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물자를 아끼지 않고 흔하게 쓰는것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말로 비유했던 것이 엇그저께 같은데 이제 그 사정이 바뀌어 졌다. 지난 70년대 이후 경제 개발 과정에서 대자연의 외경(畏敬)을 저버린 인간들이 오로지 물질문명에 도취되어 있는 사이, 급기야 물은 자유재의 지위에서 경제재(經濟財·돈을 주어야 구할수 있는 재화)로 그 등급이 격상(格上)되고 말았다.

지난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남편과 자식의 성공·출세를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井華水) 한 그릇을 정성스레 떠다 상 위에 바쳐 놓고 천지신명에게 한 없이 빌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위 어디서 그 맑고 깨끗한 한 그릇의 물을 퍼 올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근심도 아랑곳 없이 바위 짬을 비집고 밤낮 없이 샘솟는 낙수대의 꿀맛 같은 샘물-.

물이라고 다 물인가.

낙수대 샘터의 참 물맛을 보지 않고 그 누가 감히 물맛을 말 하랴.

그 옛날, 희대(稀代)의 코메디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 던데, 이 글을 보고 생수에 미친 현대판 김선달이 나타나 낙수대 약수를 팔아먹기 위해 태기산을 온통 파헤칠까 겁 부터 난다.

東海岸 日記



金 亮 洙

〈1990년 7월 1일〉

대관령 휴게소에서 비빔밥을 먹고 짙은 안개속을 구비구비 내려오니 설상가상 빗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88장 여관에 짐을 풀고 줄담배만 피워댔다.

〈1990년 7월 2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빗줄기는 계속 퍼부어대고 있었다.

전지훈련겸 이틀이나 먼저 떠나 왔는데 여관방에서 뒹굴고 있자니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죽서루에 갔다.

비를 맞은 내모습이 비릿한 생선 내음에 찌들은 물골이었다.

〈1990년 7월 3일〉

드디어 아침 햇살이 퍼졌다. 어제까지 심하게 불던 바람도 멎어 있었다.

괜히 가벼운 흥분이 일었다. 무언가 있을법한 예감이 머리속을 스쳤다.

6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삼척여고 양궁장으로 나갔다.

오늘은 조준발사여서 그런지 아이들도 부담감이 없는듯했다. 나는 연습장을 두루 살펴며 전력탐색을 했다.

〈1990년 7월 4일〉

강원도 소년체전 양궁시합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다.

30M 조준발사가 2번 있을 때까지 나는 벌써 한 갑의 담배를 피웠다.

상대는 우리 보다 규모가 큰 학교들이고 실력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조여졌다.

오전 시합이 끝났을 때 우리는 40여점을 앞지르며 선두를 지켰다.

일단은 숨을 돌렸지만 쫓기는 입장으로 오후 20M 경기에 들어갔다. 자신감을 얻은 아이
들이 시종 여유를 보여줘서 첫날 경기는 쉽게 매듭지어졌다.

저녁에 오징어회를 먹었다.

〈1990년 7월 5일〉

마지막날 경기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금메달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번타자인
현화가 병이 들었다. 얼굴에 상처를 입어서 활줄을 대지못해서 화살을 크리카에서 못빼고
있었다. 부랴부랴 대일밴드를 구해 2분에 한번씩 갈아붙여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했다.

땀이 자꾸 흘러내려서 계속 갈아붙여야만했다. 그러저럭 오전 경기는 200점 이상의 차이
를 보이며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현화는 내머리를 아프게 했다.

단체전에서는 우승은 맡아놓고 있었지만 개인전이 문제였다. 정숙이는 4관왕이 거의
확실했지만 현화는 30M에서 골드수로 2위인데 마지막 20M에서 지면 개인 종합까지 두개
의 은메달이 동메달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8엔드까지 현화가 7점을 앞서고 있었다. 상처는 더 깊어졌으며 근심한대로 0점을 두발
날리고 말았다. 앞이 캄캄했다. 현화도 그자리에 앉아서 영영 울었다. 학무과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쫓아와서 현화를 달래고 있었지만 나는 담배만 피웠다.

〈1990년 11월 11일〉

속초바람은 사람이 날릴 정도였다. 회장기 쟁탈 양궁시합에 전지훈련차 이들을 먼저
떠나온 우리는 삼척에서처럼 또 여관비만 날리며 이들을 소모 해야 했다. 빌어먹을 태풍
때문이었다.

교장선생님 대신 집사람이 곁에서 위로를 해주었으므로 마음은 포근했다.

다른 학교는 콘도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가까운 여관에 짐을 풀었다.

〈1990년 11월 13일〉

국민학교 여자부는 원주 명륜과 속초 조산과 고성 아야진 그리고 우리 모두 4팀이 출전
했다.

지난 7월 소년체전에서 전력이 약한 팀들은 모두 기권을 해버렸다.

우리의 경쟁자인 삼척정라가 기권 했으므로 우리는 얼마간의 자신감은 있었지만 원주는
전교생이 2000명, 조산은 300명, 아야진은 200명, 정도인데 우리는 100명 정도의 소규모학교

라는 열등감을 갖고 시합에 참가했다.

첫날 시합은 예상외로 우리가 100점 이상의 점수차를 보였다.

〈1990년 11월 14日〉

제7회 회장기 갯벌 양궁시합 마지막날이다. 아침식사가 늦어서 9시쯤에 설악중학교 양궁장에 나갔다.

벌써 다른 학교들은 연습중이었다.

연습할 시간도 없이 시합에 들어갔다. 30M에서 원주의 추격을 받으며 점수가 좁혀졌다.

오후 20M경기를 앞두고 현화가 또 삼척에서와 똑같은 증세를 보였다. 대일밴드가 수없이 소모되었다.

그렇게 경기는 끝났고 정숙이는 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4관왕에 또 올랐으며 현화는 삼척에서와 똑같이 30M에서 2위 20M에서 3위 개인종합에서 3위로 밀려야했다.

그러나 단체전 우승으로 회장기를 갖고온데 만족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징어회와 삼식이 매운탕으로 축하연을 벌였다.

삼척이나 속초에서 맞는 마지막 밤은 우리를 설레이게 했으며 뜬눈으로 지새우게했다.



바 우



小說家, 晴日國校教師 정재영

“여보 -아 - 글썸 바우가 온다는 구먼 그라 바우가……”

“예? 바우가요?……”

“허- 참 그녀석두 시절 가는 줄을 알고 사는 가베여 아- 글썸 冬쫄날 내려 온대요…”

“아이구 이젠 도회지 사람 다 됐을텐디 어찌 그런 날을 다 아남”

“아따 이사람 도회지 산다고 다 그럴라구, 바우녀석이야 도회지 아니라 도회지 할아버지
엘 가 살아도 마음이야 고사리꼴 순 촌놈일텐데…”

“하긴 그러요. 바우가 어떤 앤대요. 심성이나 뭐나 그야말로 부천대요…”

“그럼-그럼 세상 사람 다 어찌 된대도 그녀석만은 틀림 없을 텐데…”

바우가,

십수년전 새카만 무명 보따리를 울러메고 노루목젤 넘어 도회지 찾아 고사리꼴을 떠났던
곰 바우가, 스무 이레 애쫄날 동이네 집엘 내려 온다는 소식은, 누구못지 않게 동이의
마음을 달뜨게 했다.

동이네 뿐이 아니었다. 동네래야 통 털어 열두집이 고작인 이 곳 고사리꼴 전체가, 오늘
낮에 체부가 주고 간 바우의 편지로 술렁 거려왔다.

워낙 동네가 손바닥만 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구네 솔에 뭐가 꿩는지 알 정도로 한
식구처럼 지내는 탓도 있었지만, 십 수년을 종무 소식이었던 바우가 뜬금없이 귀향을 한다
는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하루 하루가 그 모양인 그네들에게는 자못 충격적이었고, 토픽감
으로 충분했다.

“바우 그녀석 많이 변했겠제 부처 반토막 같더니만.”

“이따 종글박씨 문전옥답에 심는다고 대두박 되는거 못 봤남, 외양이야 변했을까 착한
심성은 그대로 백혀 있을거구만…”

“모르는 소리 하덜 말어. 아 맨날 텔레비전도 못 봤남, 눈 떠도 코 베가는 세상이 도회지
래, 바우 녀석 이 곳에 살 때같이 처신해 갖구선 코가 몇 개라도 남아나지 않았을 걸세
…”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재미로 꾸민 이야기 아닌가, 아 텔레비 연속극에 나오는 놈 치구 우리 같은 촌 무지렁이 봤어, 그저 나왔다 하면 사장이구 의사구 그렇구 그런 놈덜이지...”

“하여당간 바우 그녀석 만치 우직하고 곰 같은 녀석은 없었는데...”

“그럼. 범 없어도 살 녀석은 그녀석 뿐이었다구...”

“그건 그렇구 근심은 근심일세. 우리집 큰 애도 이젠 죽어도 농투산이는 안하겠다고 저 지랄 발광이니...”

“아 농어민 후계자인 자네 아들도 그런 말을 혀...”

“말도 말게 몇해전 후계자 지원비 어쩔내 하며 나온돈 이백만원으로 산 소가 그동안 처먹은 사료값은 고사하고, 물 한 가마를 배때기에 처 넣어 관대도 백오십을 못 받는 꼴이니 그 녀석이라고 눈이 뒤집히겠나...”

“우리집 녀석도 이구석에 처 박혀 살다가 몽달귀신 못 면한다고, 바우 녀석 이참에 오면 따라 붙을려는 눈치라구.”

“허긴 그렇게 해서라도 요행 장가라도 가게 된다면 천만다행이지 뭐, 결국엔 우리 늙은 이들만이 덩그란히 이곳에 남게 될텐데 뭐.”

동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바우 이야기를 시작으로, 맨날 떠들어 봐야 골만 아픈, 심각해진 농촌 문제로 끝 아닌 끝을 맺곤 했다.

아무튼 고사리꼴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바우의 뜬금없는 귀향을 내집 일처럼 기다리는 눈치였다.

동이는 아버지로부터 바우형의 귀향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들명거리고 일이 영 손에 잡혀지지를 않아, 쿵튀듯 바쁜 들일을 어떻게 끝냈는지 자신도 모를 지경이었다.

마을 전체가 소값에 흥역을 앓을 때에도, 몽달귀신을 면하겠다고 친구 몇 놈이 야밤도주를 놔 줄 때도 동이는 그저 그렇거니 하며 지계를 지고 산에 올랐었다.

마을 사람들이 바우 얘기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자기네들 마음 내키는 대로 칼질을 할 때도, 동이는 한 귀로 듣고 이내 한 귀로 흘려 버렸다.

“야가 왜 이리 오늘은 덤벼거려 대 쌓노, 똑바로 도리깨질을 해, 잘못 하다가간 애비 머리통 치겠다.”

“가도 지금 바우 땀에 온전 하겠어유, 바우 녀석과 어떻게 지낸 사인테...”

“녀석 하군 바우는 널 온냈어, 저 녀석은 애비가 타관에 갔다 온대도 저리 기다리지 않을

거구먼...”

“원 당신두, 우리 동이가 어떤 앤대요. 가끔방선 소문 짝한 효자구, 모범 농어민 후계자인 데요.”

“아따 내 그걸 누가 모르나. 하두 님이 빠져 도리께질을 하니 한 마디 해 본 소리지.”

평소 그답지 않게 동이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다.

그날 밤,

동이는 십 수년전, 바우형과 꿈속 같기만 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눈앞에 알찼거려 새벽 이 다 되도록 한 옹큼의 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십 수년전 그날 겨울 아침은, 분명 잠이 덜 깬 아침이었다. 건너편 매화산 소낭구 가지에 눈이 시리도록 쌓인 하얀 눈송이도, 외양간에 툭툭 튀는 아침 햇살에 빨간 다리를 내놓고 양증을 떠는 참새떼들도 부족한 잠에 하품을 놓고 있었다.

“애, 동이야 덮치기 가자.”

“형 정말, 와 신난다.”

동이는 두 말 않고 바우형 넓직한 어깨에 올라 탔다.

돼지새끼친골 짙롱나무 덩부사리 아래에는 눈만 폭 빠졌다하면, 고사리골에 살고 있는 새란 새는 모두 다 몰려 들다시피 했다.

대가리가 노란 느릅씨기, 짙롱열매라면 사죽을 못 쓰는 콩새, 꼬랑지가 유난스레 기다란 산까치, 박새, 솔새, 적바구니...소당(솔)뚜껑 만한 손에 싸리빗자루를 거머쥐고 짙롱덩부사리의 눈을 터는 바우형은 흡사 꿈이었다.

달밤에 어기적 거리며 도랑을 오르내리며 가재를 잡는 꿈이 분명했다.

덮치기 소쿠리 밑에 왕겨가 뿌러지고 덮치기 소쿠리 위에는 어른 머리통 만한 돌맹이가 [깡]하고 울려졌다.

가슴 당방거리며 덮치기 소쿠리에 잡아 맨 새끼줄을 거머쥔 동이와 바우의 손이 부루르 떨렸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산새들이 기어 들었다. 숨막힐 듯한 순간, 순간들이 새끼줄에 놓여져, 산새들의 삶과 죽음 사이를 팽팽히 오르내렸다.

땀길심이 다른 새잡이에도 없는건 아니었지만, 덮치기에 대면 어림 반쯤어치도 없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을 등에 지고, 후라쉬를 초가지붕 새 구멍에 비쳐 대며 동네를 편담하는 밤새잡이도, 짙롱덩부사리밑에 새차우를 세워 놓고 설라무네 옥시기 뱅이 뒤에가 오줌

젤젤 거리며 지켜 보는 느릎찌기 사냥도, 등가죽을「스르릉」내리 달리는 땡길심이 없는건 아니었지만, 덮치기 소쿠리에 간지럽게 매여진 새끼줄을 붙잡고 물려드는 산새들의 담방거리는 숨소릴 듣고 있노라면, 머리 위에 태양도 돌기를 잊어 버리고 멈춰 서는듯 했다.

매화봉 허리에 감겼든 겨울해가 따갑게 소쿠리 밑을 내리 쓸었다.

생명들을 간지럽게 얹어 놓 새끼줄을 질끈 당겼다.

“우지끈-쿵-덕”

눈을 감았다. 둘 다 함께...

모강지에선 켈거름한 소리가 묘하게 흘러 나왔다.

싸리소쿠리는 그렇게 아무 부담없이 ‘쿵’ 소릴 내 지르며, 산새들의 삶과 죽음 사이를 쉽게 갈라 놓았다.

“야-!”

둘은 뛰었다.

그곳,

덮치기 소쿠리 밑은 작은 지옥이었다.

흰눈 위에는 산새들의 아직도 채 식지 않은 새빨간 더운 피가 스멀거리고 있었다.

새빨간 더운 피들은 흰눈 위에 오만가지 꽃들을 그려보고 있었다.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꽃은 그렇게 흰눈 위로 한송이 두송이 피어나고 있었다.

“포르르르-”

“미처 도망가지 못한 느릎찌기 한 마리가 소쿠리에 쥘여 바스러진 다리를 빼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요-놈”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동이가 느릎찌기를 잡아 쳤다.

동이의 손바닥 위에「쿵쿵」 뛰는 불규칙스런 산새의 심장소리가 들썩던 거렸다.

“야-! 동이야 그새 이리 내.”

“왜?”

“글쎄 빨랑.”

소당뚜껍 같은 바우의 두 손이 동이의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동이의 손에서 숨을 할딱거리는 산새를 나눠 채 갔다.

“위어이- 위어이- 위어이-”

냥구지껄 반쳐놓고, 역새풀 이삭을 뜯어 날리는선머슴아 처럼, 바우가 다리다친 느릎찌

기를 하늘에 날려 보냈다.

새는 마지막 힘을 다 하려는 듯 「깡」소릴 내며 「포르르르」 날아 올랐다.

극히 짧은 순간의 작은 비상이었지만 어쩔 그것은, 그 새 최후, 최대의 운동이었을 것이다.

얼마를 더 못 날고 그 새는 만곡선을 내리 그리며 비슬비슬 건너편 산기슭의 하얀 자작나무 위로 떨어져 내렸다.

바스러진 발가락 사이 사이로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다.

여인네 속살같이 흰 자작나무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동이 가 뛰어 갔다.

그때였다.

막 동이의 손이 느린찌기를 움켜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딱 - ”

동이의 볼따구니에서 불뚱이 튀었다.

“이자숙-너 벌 받는다. 벌 받아.”

“뭐-?”

동이에겐 그야말로 날 벼락이었다.

몇해 전 코밑과 겨드랑이에 까맣까맣 솜털이 다부룩한 바우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가 꼬질꼬질한 증우적삼 하나만 걸치고 동이네 집 골머슴으로 터를 잡은 이래, 침 들은 욕이요, 침 맞아 본 뺨따귀였다.

“바우형 바보, 빙신, 곰새끼, 들부처, 기껏 잡은 새를 왜 살려 줘- 빙신같이...”

동이는 독오른 살모사가 되어 바우에게 달려들어 물고, 뜯고, 침뱉었다.

바우는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동이에게 커다란 등치를 내 맡기고 가만히 서있기만 했다.

그 꼴이란 정말 동네 사람들 말마따나 우직한 한 덩어리 바우가 틀림없었다.

내팽개쳐진 느린찌기는 마지막 남은 피를 다 쏟으며 눈위에 새빨간 꽃들을 무수히 피워 내고 있었다.

하늘,

건드리면 「짹」소릴 내며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시퍼런 하늘에서는 바람 한 점이 조용히 일고 있었다.

바우가 마을을 향해 눈 위를 뛰었다. 잡은 새와 싸리소쿠리와 동이를 내 버려 둔채.....

그때 마을을 향해 뛰어가는 바우의 둥글 넓적한 얼굴 위에서는, 주먹 같은 눈물이 뚝-

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십 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 바우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동이는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다.

머칠 전 돼지새끼친골 덮치기를 다녀온 후부터 바우형은 그렇지 않아도 말수가 적은 터였지만 아예 입을 봉창하고 아침 저녁으로 쇠죽을 끓이고, 낮이면 지겟지고 매화산엘 올랐다.

그날은 마침 고사리골 사람들에게는 어느 명절 못지않게 중히 여기는 동지날이었다. 산골에서 태어나 산만 쳐다 보고 살다 산에 묻히는 이곳 산골 사람들에게는, 산은 자연, 그들 생활의 전부였고, 산신령은 유일한 그네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호환이나 집안을 넘보는 온갖 잡귀나 산짐승을 쫓기위한 액막이로 집 안팎 곳곳에 뿌려 지는 동지 팔죽은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의 커단 지복술에서는, 새알같은 수수쌀 웅시미가 꼬물락거리며 옆에만 가도 구수한 냄새를 풀풀 뿌리는 팔죽 술을 넘실댔다.

“바우형, 팔죽 되게 먹고 싶다, 그자,”

“아녀, 안부엌에 낭구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여...”

동네서야 이미 배 크기로 소문난 바우였지만, 그날 단참에 당대접으로 다섯그릇이나 팔죽을 먹어 치우는 바우를 보고 동이네 식구들은 기함을 했다.

“야아, 바우는 정말 바우구먼 인제 본계 밥포수가 아니고 죽포수네 그랴 - 바우는 이제 큰일 났네 원래 동지날은 팔죽 먹은 숫자 만큼 낭구를 해야 산신령님께 벌을 안 받는 대요. 어떡하노, 동지 해래야 토끼 궁데이 보다도 못한대...”

“엄니 그지뿌렁이지.....”

“야는 내 언제 그지뿌렁 하든.....”

그러나 나이 어린 동이도, 엄니의 말투로 봐, 일부러 바우를 놀려 주려는 우소개 소리란 걸 금새 알아 차릴 수 있었다.

누리꾸레한 낭구장갑을 끼고, 낭구지겟 지고, 삼작문을 나서는 바우를 본 엄니는 팔쩍 뛰며 바우를 붙들었다.

“바우야 아까매는 니 어찌나 불려고 일부러 한번 해 본 소리여, 아! 온 마실이 다 노는 날 청승맞게스리 낭구는 무슨낭구여 그만 뒤 글썸...”

“.....”

그러나 바우는 엄니 얘길 들었는지 먹었는지, 아무 말 없이 삼작문을 나서서는 산엘 올랐다.

“어이그 저 미련 곰단지 같은 외고집 같으니라구 정말 못 말린다니까.”

산에 오르지 두 시간이 채 못되어 바우는, 청좌리를 한 짐 해 짊어지곤 삼작문을 들어섰다.

그리곤 부리나케 산으로……

두 짐, 석 짐……

나나니 허리통 보다도 가느다란 짧은 짧은 동지해에 남구 닷 짐이라는건 애당초 어렵 반푼어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고사리골 남구받은 그리 좋지 못했다.

쇠물불 연기가 집집마다 잿빛 지붕 밑으로 들쭉날쭉 거릴때 쯤 해서 바우는 남구 닷 짐을 채웠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쯤해서 땀이라는 걸 모르고 살던 바우의 온몸에서는, 주먹 땀이 비 오듯 말했다.

왼 겨우내 남구가시에 찢리고 걸켜맨 손등에는 빨간 피딱지가 줄줄이 엉켜 붙었다.

“이젠 그만 허-웅 고집통좀 자금 부리구-”

“아네요. 심들지 않구먼요. 팔죽심이 들들해요. 얼핀 한 짐 더해 갖고 올께유”

둥이도 둥이 엄니도, 고양이 발톱 같은 까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바우가, 근심이 되어 배길 수가 없었다.

스무 아흐레 동지달이래봐야 그저 시늉만 냈을 뿐이지, 고사리골의 어둠을 밝혀주는데는 조금도 도움이 돼 주질 못했다.

아버지의 끈통아리를 들으며 동이네는 산에 오른 바우를 찾아 산에 올랐다.

갈가지를 등에 달고 다닌다는 수리부엉이가 칙칙한 어둠속에서 연실 푸드덕 거러 댔다.

칼날 같은 산골 추위가 온 몸을 따끔따끔 찢러 왔다.

“으응그래진 이 추위 날씨에 윈 녀석두……”

“아, 그래 괜히 당신은 실 없는 소릴 해 가지고 생사람을 고생시켜 글썸”

“윈 당신두 하두 복스럽게 팔죽을 먹기에 장난에 소리좀 했는데.”

“아뭇튼 그녀석 고집 하난 알아 준대두, 바우는 역시 바우여.”

“춘향아, 춘향아,

남원읍에 성 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경치 좋고 산수 좋은 곳으로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춘향아 춘향아
남원읍에 성 춘향아……”

함장한 두 손, 질끈 내리 감은 눈, 가물거리는 등잔불 밑이 아니더라도, 무릎꿇고 앉아 있는 바우는 살아 숨쉬는 물체가 아니었다.

꿇어진 듯 이어지는 삼베이 목소리가,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바우의 몸을 춘향의 혼을 빌어 뜨겁게 풀무질 해 갔다.

동이네 사랑방에 모여 앉은 또래 또래의 눈, 눈들에서는 어서 빨리 맛볼은 바우의 두 손이 떨어져서, 맵시 고운 춘향이 혼이 실려 주었으면 하는 한결 같은 바램들이 번들거려 댔다.

넓다란 바우의 이마에 끈적끈적한 땀이 흘러 내렸다.

바우의 정지된 혼 속으로 춘향이 혼을 불어 넣으려는 삼베이 녀석의 주문이 끝없이 이어 졌다.

삼베이의 귀신 부르는 주문 소리가 어떤 끝점을 향해 숨가쁘게 줄달음 쳤다.

바우의 숨이 점점 거칠어져 갔다. 평퍼짐한 바우의 두 어깨가 학질 환자 저녁참 맛듯 떨리기 시작 했다.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 않던 맛볼은 두 손이 덜덜거리며 조금씩 벌어졌다.

금방이라도 허공을 떠돌던 춘향혼이 바우의 몸을 빌어 쓰고 다가 올것만 같았다.

또래또래의 아이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두 눈만 멍뚱거렸다.

「스르르-릉」

허공중에 떠돌던 춘향혼이 마침내 두손으로 들어와 핏줄을 타고 어깨로 가슴으로 돌아 다녔다.

곰 같은 바우의 몸뚱아리가 사뭇히 땅을 차고 일어났다.

사시나무 떨 듯 온 몸의 진동이 계속됐다.

작년 여름엔가 양짓모테이 신 짙힌 아줌니가, 내림굿을 할때 숨을 헐떡이며 신장대를 잡고 온 몸을 떨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겨울 밤 또래또래의 녀석들이 모였다 하면 연례행사 처럼 벌이던 판이었지만, 이 때가

동이에게는 가장 무섭고 가슴 죄였었다.

이제 바우는 몸 뿐이지 이전의 바우가 아니었다. 그의 땀줄 속으로는 전혀 다른 혼이 흘러 들어와 제멋대로 오르내렸다.

둘러 선 또래또래의 아이들은 이제 신바람이 났다.

이때껏 숨 죽여 온 긴장이 「팽」소릴 내며 끊어져 나갔다.

춘향혼을 바우 몸 속에 불러 넣어 준 삼베이가 어떤 짓거리를 내릴 때까지 바우는 그 큰 덩치를 실롱거리며 계속 방안을 맴 돌았다.

작은 악마 같이 반들거리는 실눈의 삼베이가 첫번째 짓거리를 내 질러댔다.

“춘향아 춘향아 춤을 춰라, 모란꽃에 나뉠 집고 살포시 내려 앉은 나비 같이 고운 춤을...
...”

아니다 아녀 흥겹고 신바람 나는 춤을 춰라 날라리 춤을.....”

“기타소리 덩동댕 들려오는 멜로디 사랑하는 그대여 즐겁게 춤을 춥시다.

달랄라-달랄라 달라-라-”

바우가 최면술사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처럼 춤을 춰댔다.

그런 흡사 늦가을 들판 한 가운데 서있는 허수아비의 을씨년스란 짓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평퍼짐한 엉덩이를 흔들며 제키며 실루엣 거리는 바우의 얼굴과, 몸뚱이에서 주먹땀이 흘러 내렸다.

“춘향아,춘향아,

이번에는 텃밭 고추 같이 맵시 고운 잠지를 보여라.

그리고 서방 품에 안기어 요살을 떨듯 힘차게 용두질을 치거라-”

바우가 숨바지의 허릿바를 끌러 내렸다. 무명 뺨츠가 이내 바우의 손에 의해 주르르 아래로 흘러 내려졌다.

둘러선 아이들은 까만 털이 다부룩히 난, 분명 즈들과는 다른 바우의 잠지를 물기어린 눈으로 치어다 봤다.

바우의 손에 쥐어진 잠지가, 그에 손동작에 의해 자꾸만 고개를 끄덕거렸다.

또래또래의 둘러 앉은 악동들 모강지에서는 「꼰깍」소리가 났다.

“그만 그만 ~~해~~”

저도 모르게 동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우 쥐방울 만한 꼬마 자숙이 성님들 앞에서 밤 뇌라 대추 뇌라 해 건방지게 스리-”

밤이 이슬해져 별 해괴한 짓거리를 다해 보다, 제풀에 심검증이 날때서야, 바우는 삼베이 한테 왼쪽 뺨을「찰싹」 얻어 맞곤, 본래의 바우로 되돌아 왔다.

춘향이 혼이 무수히 짓밟고 간 바우의 온 몸은 후줄그레한 한 쪼가리의 걸레였다.

“하여당간 바우가 춘향이 혼 실리는데 제일이야.”

“아-그럼 여부가 있나 우리 같은 놈은 백 날 나대도 춘향이 혼 커녕 향단이 혼도 얼씬거리지 않는다구”

“춘향이 혼두 다 사람 보구 찾아오지, 부처 반토막 같은 바우한테 말여...”

“자식들 괜히들 그려...”

맘에두 별루 없는 공치사에, 바우는 겸연쩍은듯 머리를 굽적 거렸다.

어린 동이 마음에도 착하디 착한 바우형을 즈들 놀림감으로 부려 먹는 녀석들이 알미워 동이는 그 녀석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 바우를 다그쳤다.

“형아! 바보같이 또 춘향이 놀이야 저 녀석들은 형아를 놀려 먹을라고만 한다고.....”

“동이야 난 괜찮아, 나 바보 아녀. 나 땀에 긴긴 겨울밤을 재미있게들 보내지 않니. 안 그려”

정말 어린 동이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다만 겨울 바람에 퐁퐁 언 동이의 손을, 소당뚜껑 같은 손으로 꼭 붙잡고 녹여주는 형아가 고마울 뿐이었다.

“형아 바보 아니지 그치”

“그럼 그럼”

멀리서 삼단 같이 새카만 겨울밤을 부엉이가 “떡해 먹자 부-엉”하며 뒤흔들어 대고 있었다.

정월 한달내내 고사리골 동구머리 공터에는 원종일 자치기꾼들이 그칠 날이 없었다.

동이 또래의 꼬질질이 아이들, 풍났가리 뒤에 가 빼끔 담뱃 물레 뽀뽀 피워 대는 삼베이 또래 녀석들, 겨울밤이면 으스스한 사랑방에 모여 앉아 잡지를 꺼내 놓고 용두질을 쳐 대며 문풍지 뚫기 시합으로 막걸리 내길하는 더 큰 패들...

예나 지금이나 손바닥만한 동네라 자치기에는 쪼그만에 큰애가 따로 없었다.

그저 잣대 들고 코띠기를 칠 수 있을 정도면 자치기 판에 끼워 주었다.

동이는 푸동을 하자고 그럴까 봐 얼른 침을 각 뺐고, 신당낭구 코띠기를 머리 풀어 동그라미 안에 살그머니 내려왔다.

물푸레나무 잣대가 「탁」소릴 내며 코띠기를 하늘로 날려 올렸다.
상대편 애들이 결사적으로 날아가는 코띠기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심심찮게 자치기 판에서는 이마가 터지고 심지어는 눈알에 맞아 눈을 다치는 아이도 더러 있었다.
동이는 빠른 동작으로 코띠기를 잣대로 「톡」친 다음 반대편 손으로 얼른 받아 쥐곤, 냅다 뛰기 시작했다.
「들고 뛰기 자치기」였다.
상대편 애들은 동그라미에 발을 붙이고 서 있다가 들고 뛰는 동이를 채려고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냅다 몰려 왔다.
지금도 인근 국민학교 운동회나, 군 체육대회에 면대표로 나가면 등수에 들곤하는 동이는, 그때도 덩치는 조막만 했지만 뽀박질을 꽤 잘하는 터수였다.
동이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곤 풍지가 빠져라 하고 동구머리를 지나, 행성이 있는 곳집겔 향해 냅다 뛰었다.
보도랑이로, 둔덕바지로 개골창으로 천등에 개 뛰듯 뛰고 또 뛰었다.
따라오던 녀석들이 하나 둘 눈독에, 둔덕바지에 주저 앉았다. 언제나 쫓는게 힘 드는건 매한가지인 모양이었다.
그렇게 하나둘 따라오는 녀석들이 눈에 안 띄자, 동이는 뒤를 보며 속도를 늦췄다. 도망가는 것은 따라오는 놈이 있어야 신나는 노릇인 모양이다. 그때 저쪽 눈두렁으로 식식거리며 열심히 누가 쫓아 오는게 동이 눈에 보였다.
까치독만한 덩치가 쿵쿵 거리며 이쪽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쫓아 오고 있었다.
바우였다.
동이는 다시 신바람이 났다. 흠다리를 건너고, 고래실논을 가로질러 응달말을 향해 뛰어 갔다.
바우의 콤파스는 동이의 두 배는 되는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거리는 점차 좁혀졌다.
오십보, 삼십보, 이십보……
등 뒤 열 발자욱 정도까지 바우가 따라 붙었다. 쿵닥거리는 바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며, 금방이라도 소당뚜껑 같은 바우의 두 손이 동이를 썰 것만 같았다.
동이는 다급한 김에, 응달말 과수집 잣간 지붕으로 코띠기를 냅다 던졌다. 잣간 지붕 위에는 이파리가 바짝 마른 박 넝쿨이 겨울 바람에 버스럭대고 있었다.

“삼만 오천자.”

“삼만 오천자? 좋아 재.”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쫓아오던 바우가 재자고 하며, 동이에게서 잣대를 뺏아 들었다.

“내가 돌아 다닌 대로야, 툴”

동이는 몰르자고 그럴까 봐 얼른 땅바닥에 침을 「작」 내 뱉었다.

“한 자요, 두 자요, 스물, 서른, 백 오십...”

“구백 구십 구 자요. 그담은, 몇 자지?”

손가락 발가락까지 동원하다 안돼, 작대기를 꺾어 썬해 오던 바우가 따라 온 아이들에게 물었다.

“어휴, 그러면서 뭘 재자고 해 재자고 하긴. 천이여 천, 백이 이렇게 열개란 말여...”

“응-그렇지 내 깜박 했구나, 천 한자요, 천 두자요...”

잣대를 되집으며 바우는 고래실논을 건너고 곳집을 돌았다.

“야, 이 답답아, 그까짓 삼만오천 자 주면 땅 팔아 대냐 짐 그만이지”

“어휴 저 녀석 앞뒤가 꼭 막힌거 하군”

“아녀 조금만 쟈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겨우내 남구 하느라고 걸켜 맨 바우의 손등에서 새빨간 피가 흘렀다.

“이천사백 두 자요. 이천사백 세 자요.....”

동이는 십수년 전 그때, 그 큰 등치를 구부렁 거러대던 우스꽝스러운 바우의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동이야 막차 올 시간 됐다. 바우형 마중 가야지.....”

“콩마대이 설건이가 좀 남았는데요.....”

“아마 그거야 애비가 좀 더하면 안되냐, 오늘 다 못하면 널 아침 일찍 하지 뭐”

“아버지 그럼 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여 탕겨 와.”

다른 일과 달리 콩마대이는 바짝 추운 날 이래야만 콩꼬투리가 잘 벌어지며 콩이 잘 털렸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도 춥고, 날이 좋았다. 콩마대이는 이런 날이 제격이다.

“얘야, 오늘 하루는 쉬지. 동지날이라고 원마실이 다 놓고 또 바우도 온다는데.....”

“뭐하니 하루 쉬면 뭘해요. 일반 밀릴 텐데요. 그리고 놀며 기다린다고 바우형이 제시간 보다 빨리 오겠어요.”

“그렇기는 하다면.....”

사실 아무 일도 안하고 하루종일 바우형을 기다린다는 건 동이로서는 더 죽을 노릇이었다.

그러나 막상 맘이 풀려 일을 할려니, 도리깨질이 제대로 될리 만무했다.

참으로 길고 긴 하루 해를 조바심 속에 동이는 보냈다.

노루목재에는 벌써 부엉이 깃털처럼 어둠이 내리 깔리고, 매화산은 까만 어둠 속에서 숨소리 하나 못 지르고, 동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십 수년 전 그날,

울며 불며 노루목재 넘은 바우형 모습이 어둠 속에서 「획」다가와 동이 앞에 섰다.

“집도 절도 없는 놈이 도회지라고 낫겠습니까만, 내 살 곳이려니 맘 먹고 내심자라는데 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 보겠어요. 육신이 멀쩡하니 굶기야 하겠어요. 너무 근심들 마세요.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칠려구요.”

“그럼 우리 바우 같은 착한 심덕이 어딜 가면 못 살겠어. 아무리 도회지 도회지 해도 맘 바로 쓰고 열심히 심 내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지 뭐-”

“그동안 신세 너무 많이 졌습니다. 철모르던 철 친자승 처럼 보살펴 주신 은혜 이 세상 살도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올라가 자리 잡는대로 연락 하겠습니다. 또 제가 먹고 살 만하게 되면 여길 꼭 다시 찾아 올거 구면요.

태 버린 곳은 아니지만 이곳 고사리골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걸요. 동이도 잘있어. 그동안 내 못된 짓 많이 했자, 동이는 정말 친동생 같았었는데…… 동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떠나는 구나 잘 있어 동이야……”

눈물,

바우형 두 눈에서 「뚝-뚝」떨어져 내리던 주먹 같은 눈물.

그날은 하얗게 내리 덮힌 무서리로, 노루 목재의 이파리 없는 낭구들이, 모두다 아침 햇살에 은빛가루들을 반짝 거러대고 있었다.

손에 든 것이라곤 꺼먼색 물들인 작업복 두 벌과, 시장 할 때 찻간에서 먹으라고 싸 준 인절미 한 덩어리가 전부였었다.

바우형은 무명보따릴 올려 메고, 울고 또 울며 하얀 무서리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노루목재 오르며, 동이의 손을 꼬옥 쥐어 주었다.

“형아, 잘가 나도 형아처럼 살거야 바우처럼 말아”

그때, 입 밖에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 했지만 어린 동이는, 자기의 손을 꼬옥 쥐고 고갤 오르는 바우형을 따라 걸으며 맘 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었다.

그때 그손,

어쩔 바우형 손은 그의 마음 처럼이나 그렇게 따스웠던지, 그리고 십 수년 동이는 읍내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한 삼년을 빼곤, 누구 말마따나 비전이 별로 보일것 같지 않은 고사리골 땅을 갈고 매만지며 큰 욕심없이, 어떻게 보면 우직스레 이때까지 살아 왔었다.

바우형이 금방이라도 어둠 속 저편에서 불쑥 나타나 동이의 이젠 못이 꽤나 박힌 찬 손을 「꼬옥」 붙잡고 등이라도 다독여 줄 것 같애, 동이는 아무도 없는 빈산을 연실 휘둘러 보곤 했다.

“아저씨 아직 여섯 시 막차 안 왔지요.”

“아이구 고사리골 동이 아녀 아직 안 왔는걸 누굴 기다리나?”

“아저씨도 알거 구먼요. 저 왜 바우라고 십 여년 전 고사리골 저희 집에 살다 서울 올라 갔던 곰 바우 있잖아요. 그 바우형이 오늘 온다고 기별이 왔구먼요.”

“아, 알지 생각나구 말구, 그 뭐시냐 씨름선수 이 뭐시기 처럼 생겼던 바우말이지, 자네 집에 꼴두 배우고 일해 주던 바우, 참 심하난 장사였었지……”

“심 썬인줄 아세요. 오죽하면 별호가 부처 반토막 이었남유……”

“그런 사람 드물지 더더욱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하여튼 범 없어도 살 사람이었으니까, 그나저나 도회지 살아도 촌것 못 버리는 걸 보니 기특하이, 어쩔 동지날인 줄 알고 날 받아 내려 오나 그라 팔죽 생각 꽤 났던 가 베여. 팔죽도 때와 시가 있는 기라, 암 그렇지, 동지날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루……”

동이는 버스부와 고무신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대머리 아저씨 불들어 놓고, 평소 그답지 않게, 바우형이 성공했다며 보낸 편지건 이라든가, 어릴적 바우형과 고사리골을 핀담하던 애기 자투리까지 모두 끄집어 내어선 너스렐 떨었다.

버스가 도착하기 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불들어 놓고 떠들지 않으면, 동이는 배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머털리 서낭당 고개 모퉁가지에 두 개의 커다란 헤트라이트 불빛이 비쳐오고, 그릉거리는 버스 소리가 들려 왔다.

동이는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얼어 붙을 듯한 긴장감이 온 몸을 짓눌러 댔다.

‘원 암만 시골 완행 버스라도 저렇게 느려 터져서야 원……’

동이는 괜시리 천천히 기어오는 듯한 버스가 짜증 스텝기까지 했다.

하루 고작 두 대 밖에 안 드나드는 탓도 있었지만, 버스안은 늘 만원이었다.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술향기 시냇가에 가재를 잡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버스가 있는데도 무한케도 녹음테이프인 카트리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같은 노래를
 쥐어 짜고 있었다.
 하루종일 돌면서 노래 부른 탓인지 가수의 목소리는 좀 쉬것 같기도 하고 느려터져진
 것 같기도 들었다.
 꾸역꾸역 만원버스는 막걸리 기운이 얼얼한 장돌뱅이를 토해 내고, 소금에 쩌ن 파김치
 같은, 장터거리 통학생들을 토해 냈다.
 그때마다 동이는 모강지를 길게 빼 가지고선, 버스안을 살피기에 바빴다.
 ‘어! 안왔나, 그럴리가, 바우형이 어떤 사람인데……’
 라면 봉다리를 붙여서 만든 위생 봉지를 손에 든 할머니를 끝으로, 버스안은 거짓말 처럼
 텅텅 비어 버렸다.
 동이는 맥이 「탁」 풀렸다.
 이적지 못 느꼈던 도리계질에 느슨해진 두 팔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 졌다.
 바로 그때였다.
 동이가 맥살 풀려 멍청하니 버스안을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리던 참이었다.
 검은색 신사복을 짝 빼입은 건장한 사람이 동이의 어깨를 「툭」쳤다.
 “야! 동이 아녀. 동이 맞게. 덩치는 다 컸어도 어릴 때 모습은 그대로 있네”
 “…….”
 “와 이젠 다 컸네. 아버질 쏙 빼 닮았군 그래.”
 번쩍 거리는 금테안경,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무슨 객승인가 하는 가수의 머리같은 바글
 바글 붉은 라면머리, 물신 풍기는 화장품 냄새……
 어느 구석에도 옛날 바우형의 모습은 한군데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한가지 왕탱이
 같은 목소리만 옛날 바우형 그대로였다. 목소리까지 달라졌더라면 “뭐-이런 싱거운 사람이
 다 있어”라고 화를 내곤 동이는 노루목 짤 올랐을 것이었다.
 “야! 시골 완행버스 정말 못 탈 노릇이더라. 이런줄 알았으면 렌트카라도 하나 가지고
 오는 건대. 내 참 더티해서 덜컥 거리는건 둘째 치고서라도 이거 뚫대기 시장 한 복판같
 이 우라지게 떠들어 대쌍는지, 이거 정말 수준 차 느끼겠대. 교양문제야 교양-”
 “장날 차는 다 그래요. 이골짜 저골짜에서 나와 모처럼 만났으니 사연도 가지 가지고
 얘기도 자연 많아지는걸요”

“야, 말 마라. 교양머리 없는치들 하고는, 웬 막걸리 냄센 또 그렇게 풍겨 대는지 윈, 촌사람들 티 못내서 안달이 난 모양이드라, 한 마디로 후져, 후지다구. 하여간 스타일 짝 구겼어.....”

스타일이 양복 카라인지 바우형은 연실 손을 들어 양복 카라를 주물러 댔다.

동이는 어둠들이 들쭉날쭉 거리며 잔치를 벌이는, 노루목젤 오르며 바우형에게 바짝 기대어 걸었다.

큼직한 바우형의 두 손이 자신의 찬 손을 꼭 잡아 주길 맘 속으로 은근히 기다리며...”

“동이야 고사리फल은 아직도 감감이나?”

“웬걸요. 몇 해 전 자부담으로 새마을 전기를 끈 걸요.”

“전기만 있음 뭘 하나 노루목 산골짜 전체가 감감 절벽인데, 야 이런데서 답답해 어찌 사노.”

“형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도 등잔불 밑에서 오손도손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애요. 바우형 옛적 생각 안 나우. 꺼물럭 거리는 등잔불 밑에서 기나 긴 겨울밤을 지냈던 일이에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애요. 요즘 전기가 들어오고 부터 서로 마실두 뚝해요. 마실 가는 것 보다 텔레비가 더 재미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안마! 집어쳐라 그 쟁피했던 과거지사는 왜 또 끄내노.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귀는 폰(애인)이 과거지살 물을때면 기가 팍 죽는 난데.....”

동이는 뭔가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어릴적 그 바우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동이야, 농촌에 뭐 비전이라도 보이냐? 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 소값이 개값이고, 촌에 사는 녀석들에게는 폰들이 시집도 안 온다면서, 하긴 주관알 텅기면 자명한 노릇이지. 촌에 시집와 두 손이 갈퀴가 되도록 썩빠지게 일해봐야 뭘 낙이 있겠냐, 차라리 공돌이 만나 손에 흠 안 묻히고 맞벌이 하며 사는게 낫지.”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 한만큼 보람도 있고 촌에서두 쯤만 부지런하면 문화시설도 얼마든지 장만하며 사는걸요. 농한기에 관광두 다니고요.”

“야가 인제 보니까 철저한 새마을 지도자 됐군. 고등학교 까지 나와 이 산골 구석에서 뭘 빨갸다고 땅을 파나, 중학교 문턱도 안간 애들도 지금 때때고 광내고 사는 애들이 수두룩 해...”

“.....”

동이는 이날따라 노루목재가 갑질이나 멀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야- ! 이거 바우가 얼마 만이여 응. 얼핀 올라 와. 정말 편지대로 큰 성공 한가보네. 여보 뭘 하고 있수 응? 바우 시장 할텐데 팔죽부터 빨랑 데워 오구려-”

“아이구 그럼 여부가 있겠어요. 팔죽은 아침나절부터 손님 기다리느라고 지복술에서 저리 펄펄 끓고 있는대요.”

“올해는 공교롭게스리 애동지야. 바우 좋아하는 수숫쌀 응시미가 없어서 어떡하지...”

“아무렴 어때요”

“그래두 이게 보통 팔죽인가 동지 팔죽인데”

당대집 한 개, 시퍼런 총각김치 한 탕기와 찐지 한 사발이 담긴 개다리소반이 들어 오고, 오지동우에 담겨 방에 들어 왔다.

“많이 들어. 팔죽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두 오늘은 낭구 해오란 말 안 할테니까-”

“예기 사람두 실 적은 거 하군 허-, 허-.”

“한 그릇두 남기겠는걸요.”

“괜히 심 차리지 말구 어여 들어 진 겨울 밤이라 배가 쉬 고파오는 걸.”

“정말 저렇게 많이 못 먹어요. 조금만 덜어 주세요.”

“아무리면 양이야 변할려구.”

심은 저렇게 차리면서도, 더두말구 당대집으로 서너개 정도의 팔죽을 달다 쓰단 말없이 먹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동이 밤속에 간절히 차 올랐다.

어쩔 그건 이웃집에서 얻어 온 뭇떡을 끌러 놓고 놀러 나간 손주 녀석을 부르시는 할머니 맘과도 같았다.

동이의 바람대로 바우형이 팔죽을 푹푹 퍼 먹어 주면, 동이는 아까 노루목젤 넘으며 바우 형에게 들은 몇 마디의 섭한 얘기들과, 웬지 모를 서먹서먹한 거리감은 말끔히 사라져 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동이의 간절한 바람은 바람 그 자체로 끝나 버렸다.

바우형은 한 그릇의 팔죽도 다 못 먹고 숟가락을 놓고 말았다.

“아니 ! 이게 웬일이여 팔죽 호주가 반찬이 변변찮아 그런감. 일부러 다른 반찬 안하구 바우가 좋아하는 총각무수만 새로 꺼내 왔는데.....”

“아네요. 배 부른걸요. 요즘 전 매일 「다이어트」를 해, 아침 식사래야 식빵 한 조각과 애그후라이 한 개 밀크 한 컵이 고작인걸요.”

“아이구 그렇게 먹고서 그 큰 등치가 어떻게 버틴대야. 애고 으른이고 뱃고래가 든든해야 심을 쓰는건대.”

“다 버릇 할 탓이에요. 영양가 없는거 자꾸 먹어 똥배나 늘구면 뭘 해요...”

동이는 개다리소반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팔죽 사발과, 영양가라곤 애당초 있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총각무수가 무척이나 어설프고 을씨년스럽게만 보였다. 아니 밀크 한 컵과 애그후라이로 매일 식사를 한다는 바우형이 먼나라 사람 같이만 느껴졌다.

“그래 그동안 객지에서 고생 많았쟈. 이젠 좀 살만한 모양인가 베여-”

“제가 그간 고생 했던 얘기가. 아님말로 소설을 써도 몇권은 실히 될거예요.”

“그렇거구먼, 가진거라곤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을 테니.....”

“고사리골을 떠나 딱하니 서울역엘 내리면서부터 제 고생문은 열렸어요. 맨처음 일자리라고 얻어 걸린게 장래집 뽀이었는데, 주인 영감탱이가 어찌나 지독하든지 텅텅 불어터진 짜장 두 그릇 주고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아마 밥집에서 밥 굶었다면 어느 누구도 안 믿으실 거예요. 첨에는 너무나 배가 고파 주인 몰래 손님상에 남긴 음식을 막 쓸어 넣었어요”

“저런 저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썩-썩...”

눈물이

진한 눈물이 동이 어머니 눈에서 그렇거러 댔다.

동이는 배고팠던 바우형의 입장이 되어 연실 빈 배를 문질렀다.

“세상에서 젤 서러운게 배고픔 이더군요. 그래서 참다못해 그 집을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 안 되는 놈 없다가, 그 후로는 그저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마다하질 않았어요.

구두 닥쇠, 음식점 아라이, 평화시장 3층 구석방에서의 시다질, 장안평에서의 맥기꾼, 딸딸이차 조과장...”

“기-참 정말 별별 고생을 다 했구먼 그랴. 지금은 참한 일자릴 잡고 자릴 잡았나?”

“취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고 지금은 아주 끝내주는 데 있어요.”

“끝내 주는 데 라니 어떤 텐데 무슨 공장인가?”

“그까짓 월급 몇 푼 받아가지고 언제 한 밀천을 잡습니까. 한 밀천 잡으려면 뭔가를 해야죠. 지금 있는 데는 규모가 꽤 큰 식료품 가게인데 하루 매상이 기십만원은 돼요. 주인 영감탱이 전직이 훈장이었다나봐요. 세상 물정을 뭐 아는게 있어야죠. 그 양반 저 없으면 그 장사 하루도 못 한다구요. 허긴 그 양반 나 같은 사람이나 만났으니 망정이지 저

말 있지 않습니까? 선생 퇴직금은 본놈이 임자라고요. 하여튼 주인 영감은 가계만 지키고 모든 실질적인 거래는 제 손에서 끝난다고요.”

“그럼 바우야 어딜 가도 신용이 있지. 아 옛날 별호가 부쳐 반토막 아닌감.”

“월 별 말썸두...”

“그래 월급은 얼마 큼이나 타누”

“월급이라고 이십만원 정도 되는데, 그까짓거야 용돈 밖에 더 되나요. 그거가지곤 서울서 먹고 살기도 바쁜걸요.”

“웬걸 이십만원이 적은 돈인가. 아랫마실 고등과 나와 면서기 하는 김서기도 다 제하고 그 정도 밖에는 못 가져 온다 하는데...”

“아이구 아저씨두 전 요즘 장사 공치지 않았다고 하면 퍼런게 두서너장쯤은 매일 제 주머니에 들어 오는걸요”

“뭐! 하루 이삼만원 씩이나?”

삼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것이 일년 내내 손이 갈퀴가 다 되도록 옥시기 농사를 지어, 운 좋게 일등을 했을 때 가마당 3만원을 받았으니 말이다.

“무슨 수입이 어디서 그리 생기노”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하기는 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거야 다 수가 있죠. 요즘처럼 알게 모르게 치솟는 물가는 장사꾼들에게는 더 없는 찬스 거든요. 사나흘 창고에 짱박아 뒀다 뺏다 값을 올려서 팔면 되거든요. 또 매일 아침 식료품을 구입하는 주방장과, 물건은 그대로 있고 계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하여 「도깨비 계산서」라 불리는 것에 난 사인만 찍 해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곤 주방장이 갔다 주는 돈 못 이기는 체 하며 받아 넣으면 되거든요. 우리집 가게 물건이야 그대로 있으니 주인 영감이야 알뜰이 없죠. 사실 또 토까놓고 알아봐야 자기손해 날일 없으니 그 뿐이지요. 그 뿐인 줄 아세요. 채소단 하나 주물럭 대서 두 서너 단 맨드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그래두 양심 이라는게 있는데...”

“양심이요. 그개 언제 배고픈 놈 밥먹여 주나요. 양심 찾다가 굶어 죽었다고 누가 알아 주나요. 오히려 그런 치들은 요령없는 무능력자로 지탄을 받는 세상이라고요. 저도 침 서울 올라 갔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뭘줄 아십니까? 참기 어려운 배고픔 밖에 없어요. 왜 같은 노력을 하는데 저만 배고파야 합니까? 그래서 저도 살기 위해서 아니 살아 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천둥에 뭐 뒹뒹했어요. 그래

두 사나 못 사나 하는 판인데 양심은 뭐 말라 죽은 양심입니까?”

“.....”

“고춧가루도 그래요. 요즘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밭에 훑아 떨어진 회나리 고추에 물감 들인건 그래도 난쟁이죠 화학 고춧가루에 비하면요.”

“참기름은 어떻게요..... 또...”

“.....”

마침내 동이 아버지의 두 눈은 마지막 공연에 달혀지는 무대 막처럼 굳게 감겨지고 두 귀도 더 이상은 듣기 싫다는 듯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바우형을 저렇게 만든건 무엇일까? 구정물 냄새 나는 도회지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을까? 아니면 그토록이나 참기 어려웠다는 배고픔이었을까?...’

아뿔튼,

바우형을 저토록 변화시킨 모든 것이 동이는 밋고,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없이 동이 자신을 슬프게 만들었다. 갑자기 동이는 「웁」하며 가슴 밑바닥으로 부터 알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도회지 하수구에 썩어 넘치는 냄새들, 바로 그 냄새들이, 동이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자는 바우형이 아냐, 침 튀기며 도회지 사람들 살아가는 처세술을 떠들어제키는 저 사람은 수단 좋은 서울 장사꾼의 한 사람일 뿐이야.”

어디에도 동이가 찾는 바우는 없었다.

동이는 방문을 열어 젖히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우직하고, 인정 많고, 부처 반토막처럼 심덕 착한 바우형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동이의 두 손을 꼬옥 잡아 주며, 십 여 년 전, 물려 다니던 또래또래의 고사리꼴 친구들의 안부를 하나 하나 다정스레 물어올 것만 같았다.

동이는 어둠이 새카만 머릿 풀어 치렁거리대는 노루목젤 향해 뛰었다.

손바닥만한 고사리꼴 하늘에서 찰옥시기 껍대기 같은 흰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동이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곤 입을 막껏 벌렸다.

흰눈이 동이의 벌려진 입으로 가득 떨어져 내렸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지만 하던 속이 차분히 가라 앉기 시작했다.

동이는 매화산을 향해 크게 외쳤다.

“여기 작은 바우가 있다. 난 누가 뭐래도 바우처럼 살겠다.”
뜨거운 눈물이 작은 바우 동이의 불 위를 뿅뿅 타고 흘러 내렸다.
“형-아! 바우형아-!”
노루목재가 동이의 목소릴 되받아 골타데이에서 구슬프게 울리고 있었다.



제8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황성우밀 어러리 타령 —

(91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준비중)

— 자료제공 황성군청 문화공보실 —

1. 배경

횡성 우밀 어러리 타령은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우천면 정금리 마을에서 출연했다.

정금리 마을은 신라에 패주한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그 설욕을 꿈꾸며 진을 쳤던 태기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적 농촌 마을로서 태기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동 영서 문화 교류 지인 동시에 이지방 특유의 전래 민속을 형성하여 온 마을로서 횡성우밀 어러리 타령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흥망성쇠를 같이 누려왔던 농요로서 국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였던 서민들의 고요함과 적막을 잊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이 즐겨 부르던 소리로서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을 재현하므로 후세들에게 조상의 얼과 서민의 한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발굴, 재현

횡성 우밀 어러리 타령은 옛 조상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농경사회에서 애창되었던 서민들의 소리로 두레일이나 심심계곡에서 나무를 할때 고요함과 적막함을 잊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이다.

이 민요는 우리민족의 애환과 흥망성쇠를 같이 누려왔던 곡으로 국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였던 서민들의 울부짖음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환희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됨은 참으로 애석한 노릇이다. 다행히 늙으신 촌로들에 의해 여전히 그 맥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 조상의 넋을 재조명하며 애환과 연정이 담겨져 있는 민속놀이를 재현하고자 한다.

3. 우밀 어러리 타령

1. 노랑대가리 얼키석키 뒤범벅상투 언제나 저사람 길러서 내낭군 삼나.
2.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나. 우리 아버지 말한마디에 울며 불며 받았소.
3. 보리방아 보리개떡에 인정이 오고 큰아가씨 그 숨씨가 나는 좋아요.
4. 진수성찬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서 오시라면 오시나 거미같은 나하고 바래고 나여길 왔소.
5. 해 달은 오늘 가며는 내일이면 오지 한번간 우리님은 왜 아니오나.

6. 우럭죽박에 능나삼팔로 나를 감지말고 대장부 긴팔로다 날 감아주게.
7. 오늘 갈른지 내일 갈른지 분수전망 없는데 맨드라미 즐봉송아는 왜 심어놓았나.
8.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뒷집에 김도령 데리고 나물 뜯으러 가세.
9. 어스름 달밤에 귀뚜라미 소리는 정드신님 우리낭군의 소식이드냐.
10. 이방아 쪼어 놓고서 시집을 가려네 우리어머니 그성화에 나는 못살리랴.
11. 동산에 달뜨기전에 남은일을 다하고 성황당 숲속으로 남마중 가세.
12. 어러리 고개에다 정거장을 짓고 가는 손님 오는 손님 쉬어나 가지
후렴 :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4. 출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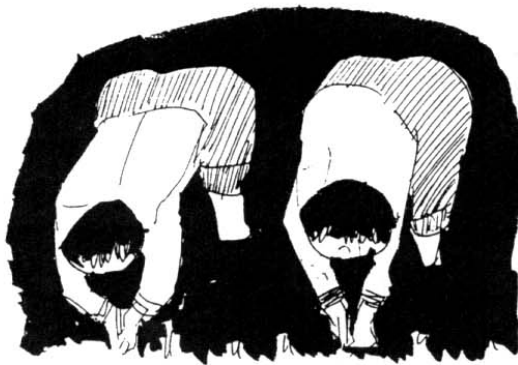
* 출연인원 : 64명(남58, 여6)

* 단 장 : 이 철 우

* 출연지도 : 양 중 하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홍성익	48	기 수	안재호	32	모 심 기	유명배	50	채 질
엄인용	41	기 수	이종대	62	-	박영식	56	지 계
김의환	53	농 기	안창호	46	-	김병구	52	-
양재학	32	모 심 기	허성범	47	-	경석화	56	도 리 개
이재범	32	-	홍재호	38	-	이정섭	47	-
손충호	39	-	전재상	29	-	안상국	43	-
엄상익	58	-	우영진	72	새 남	신종국	53	-
이계범	53	-	이종환	71	상 쇠	엄재순	63	-
원호봉	54	-	윤양선	69	부 쇠	김남구	36	-
이운우	58	-	윤주식	64	칭	김길조	53	-
안윤희	50	-	박용민	55	-	진한두	63	-
이병택	58	-	엄현태	64	북	이경사	52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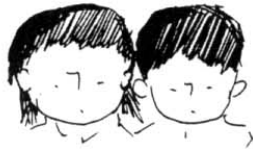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최춘식	48	-	이호근	56	-	김영택	56	소
김남국	42	-	윤양수	64	장 구	김성중	58	-
김일경	58	-	한명희	63	-	박귀옥	53	절 구
전영기	50	-	엄영태	67	노 인	정가분	65	연자쓰래
송상순	58	-	손호창	58	벼훔치기	전성운	59	-
김진한	38	-	심상섭	55	장 치	김연순	56	소 리
조태식	57	-	이우득	58	채 질	이필순	59	치 질
김진해	49	-	윤양식	55	-	김순옥	62	-
김영배	63	-	이병학	55	-			



학생문예

— '90년도 청소년 백일장 —

입상작품



봄비

용문국민학교 4년
박 설 화

보슬보슬
노랑 손자욱

사랑사랑
분홍 발자욱

입오무린 조그만
새싹들

봄비가 뿌려놓은
작은 씨앗들



산



성북국민학교 6년
정재금

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산에는
푸르게
자라나는
나무가 있다.

산에는
맑은 공기가
있다.

산에는
우리들이
자라나는
꿈이
자라고 있다.

산

황성국민학교 6년
김 태 수

산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있다.

형제처럼 다정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안겨주는
기쁨이 있다.

정상을 정복하면 뿌듯한 기쁨
그런, 기쁨이 있다.

산에 올라가면
푸른 마음을 꿈꾸는
자연이 있다.

산에는 뿌리 내린 꿈
그런, 꿈이 있다.



시(최우수)

이름없는 산이여!

우천중학교 3년
엄 주 현

내 살던 고향마을
크지 않게 아담했던 뒷동산.

바라보면 멀리 있어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
잡으면 한 손에 잡힐듯이
아담했던 뒷동산.

뛰어 오르면 언제라도
반겨주던 나무들,
바람 불면 엄마처럼
막아 주던 뒷동산이여.

내가 커서 고향 떠나도
잊을 수 없었던 그곳.
그리우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던 뒷동산이여.

유구한 세월 위에
변함없이 아름다움을 지키며

평생토록 이름을 갖지 못하는
내 고향 뒷동산이여.

모든 이들의 불평과 기쁨을
그 숲속에 묻어 둔 산이여.
뒷동산이야말로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것이리라!



밤거리

대동여자중학교 3년
안 선 희

불빛은 무지개빛으로 퍼지고
빛 바랜 사진속의 얼굴처럼
희미한 거리를 걸어본다.

밤 이슬이 살짝 머리에 내릴때까지
그 곳은 그렇게 있었다.
주위의 모든 공기들이
그곳을 맴돌았다.

하루를 보내고 바라본 하늘 아래
그 곳은 외로움이 숨쉬고
단지 낮의 추악함이
밤의 깨끗함에 묻혀 보이지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려도
외로움이 숨쉬고 깨끗함이 있는
그 곳은 밤을 위해 남으리라.



그 길로

둔내고 1년
원 철 호

회미한 안개자락 너머로
새마을 노래가
등성을 타고 오르면
덕이네 달구지가
동편너머로 합장하고 앉았다.

서울가던 순이네가
울음울던 귀퉁이엔
세월만한 소나무가 푸르고
주먹만한 자갈이 몇개.

시린 푸남도
이 고개 넘으면 없어지던
그 시절이 삼자루에 묻히고
봄이면 오르는 아지랑이에
슬며시 기대어 온다.

아마 그때 쫓이겠다.
할머니 손잡은 아이의 상상에
꿈을 불어 넣어주던

그 시절이

언제나 기다리던
어린 소녀의 왕자님이
씩씩한 영웅이.

백성의 암행어사가.
부푼 꿈으로
재촉하던 그 길

안개 끼던 그 등성이에
살짝 귀대어 보면
새마을 노래소리를 진
암행어사 도포자락이
넘실넘실 춤을 춘다.

아지랑이 오르던 그 길로…….

꿈

안홍고 3년
이 은 경

바람 한포기
야산 기슭에 심고
진달래 울음뒤로 숨어오는 가시내 가슴

넙적바위 위에다
태양을 적고
너울 씩운 흙가슴으로 노래한다.

밤새
캉캉 거리던 늙은 여우는
오늘은 이만
잠잠하기를 기대했고,
기일게 돌아서서 맑은 영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서는 아침이다.

구멍 송송한 이승의 가슴을 실어
흩어진 꽃잎 하나에 새겨두고
싸르락
싸르락이며
그늘 없는 하늘을 향해

몸을 일으켜 본다.

거기엔
살음에 겨워 허덕이던 짐승 하나.
지친 노래로 울음을 달래는
반쪽이 가려진 얼굴.

나는
반갑게 달려나와 아직은
희망 한점 밝히어 둘 새벽 있음에 감사하며
멀리 있는 이름들을
가까웁게 불러 본다.



어머니

우천국민학교 5년

이 혜 정

오늘도 여전히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집안일을 시키셨다. 나는 화를 '머럭머럭'내며 투덜 거렸다. 그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키워 보았자 나만 손해지”

하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곱게 키워 주신 분이데……’ 그래도 일하는 건 싫다는 나였다.

며칠 후, 외가로 우리 삼 형제가 떠나는 날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는 잘 지내고 갔다 오라고 돈 1000원을 주시면서 오빠에게

“동생들, 잘 데리고 놀다 오너라.”

하시고 차 타는 곳 까지 데려다 주셨다.

나는 눈물이 ‘핑’돌았다.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같이 집에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다.

외가에 도착했다. 도착 하자마자 동생과 나는 피곤 해서 낮잠이 금새 들었다.

잠자는 동안 밤이 되었나 보다 꿈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엄마.”

하고 달려갔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 만치 날아가고 계셨다. 나는 ‘엄마’하고 부르고 나서 잠이 깨였더니 내눈에 눈물이 ‘주르르르’흐르고 있었다. 그 때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빠에게 빨리가자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 나는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니 다음날 외가를 떠났다.

우리집 때문에 와서 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엄마 곁으로 가서

“엄마 왜 일 시키지 않아.”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하기 싫어하잖아.”

하고 말씀하셨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나는 또 설것이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횡성국민학교 6년
정 소 현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다. 그렇지만 엄마는 오늘도 가게로 나가신다. 다른때 같으면, 10시쯤에 나가시지만 오늘은 일요일이고 장날이어서 다른 때보다 일찍 나가셨다. 가끔 아빠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아빠 살아계셨을 때에는 든든했었는데……. 그놈에 술이 원수다.”

하고 말씀하신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 아빠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거라고는 아빠가 다른아저씨들과 나를 데리고 술집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언니들도 그렇다고 한다. 엄마는 아빠가 술을 먹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는 아빠의 배가 언제부터인지 배가 부르더니 몇달동안 원주도립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느날 갑자기 집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아빠가 돌아가신지 올해로 5년째이지만 엄마는 한번도 아빠육을하거나 아빠를 원망한 일도 없다. 다 엄마와 아빠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엄마가 하는 가게는 군청앞에 있는 4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수선을 하신다. 작지만 일거리는 많다. 내가 보기에는 쉽게 보이고 돈이 생기므로 좋지만 엄마는 무척 힘들어 하신다. 결혼한지 자그마치 20년이지만 마음 편하게 사신적은 하루도 없다고 하신다.

엄마손은 장난꾸러기 우리 3자매를 지금까지 키우느라 성한곳이 없다. 다리미에 딛 곳, 바늘에 찢린 곳, 모두 상처 투성이 이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나도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 이런 엄마를 보면 괜스리 아빠가 미워진다.

엄마는 결혼생활 20년동안 외갓덕에 가신적이 2번밖에 없다고 한다. 2번째로 간 외갓덕에는 엄마에게 조르고 줄라서 내가 쫓아갔다. 처음으로 간 외갓덕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셨다.

할머니는 정정하신티 할아버지는 허리가 90°로 구부러지셨다. 엄마는 이런 할아버지를 보시고 막 우셨다. 우리 앞에서는 한번도 울으신 적이 없는 엄마인데 할아버지 앞에서는 막 우신다. 아빠가 돌아가실때 한번 울고 한번도 운적이 없는 엄마이다. 이런 엄마를 보고

나는 아빠가 일부러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안 돌아가셨더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 20년을 꼭 참아온 엄마가 참 자랑스럽다.



어머니

성북국민학교 6년
윤 인 아

“인아야, 콩나물 좀 사오렴.”
어머니께서 부르실 때에는 “네.”
하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얼른 뛰어 가지요.
“엄마, 100원만.”
이런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무엇에 쓰려고 그러니.”
나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에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꾹 내민다. 그럴 땐, 어머니께서 “그렇게, 군것질을 하고 싶니?”하고 선뜻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는 나는 아주 작은 개미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 합니다.
그럴땐 어머니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시려고 하실 때 돈소리가 매우 요란하게 들릴 때면 그 많은 돈을 싹 가지고 싶습니다.
‘엄마가 얼마를 주실까? 100원 아니야 심부름을 하니까 200원은 주실꺼야’
어머니께서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니, 자 100원.” 나는 눈을 찌푸리며 실망하였지만, 그래도 안주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고맙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얼른 받아 시장으로 뛰어 갑니다. 콩나물을 사고 내 100원을 가지고 가갯집 앞에 섰을 땐 ‘아니야, 다음에 사먹어야지.’하고 집으로 향해 가지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께서 발을 씻으려고 하자, 양말에 구멍이 나있었지요. 엄지 발가락이 인사하고 있었지만, 나는 엄지 발가락의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방귀를 뿜습니다.
“챗.”
어머니께서
“왜 그러니.”
“아, ~아니어요.”

나는 얼른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내가, 너무 나빴어. 매일 엄마한테, 100원만, 100원만 이렇게 엄마에게 졸라대고 반찬
투정만 부리는 것이 잘 못된 일이었어.” 나는 눈에 눈물이 글썽 거렸다. “그렇지만, 이제
부터 열심히 저축하여 어머니 양말 한 켤레라도 사드릴수 있을거야.”
이 때 어머니께서 이말을 들으시고,
“인아야, 말만 들어도 엄마는 마음이 매우 좋단다. 이제는 인아가 컸으니, 엄마 생각을
끔찍히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나는 엄마의 말에 웃음꽃이 피었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에 큰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생신

청일중학교 2년
조 정 숙

어머니 생신이다. 그런데 걱정이 태산같다. 어머니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뻘뻘하게 일하시고도 나의 어머니께선 늘 초라한 생신을 맞으셨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생일날도 미역국만 먹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머니 생신이라고 화려할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다. 어머니 생신인데도 난 아무것도 드릴것이 없었고 생신상에 초라한 음식이 올려있는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다.

아침을 먹을때 난 어머니께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말도 하지않았다. 그저 슬퍼서 눈물만 흘러나왔다. 어머니 생신날은 고기를 먹어야하는데 깍두기에 김치에 미역국만 드시는 어머니를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다.

밥도 안먹은채 가방을 메고 그냥 집을 나왔다. 학교가는 길에도 눈물이 뺨을 적셨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생신날도 어머니 생신날 맛있는 음식과 케익을 먹고 선물도 드린는데 난, 어머니 생신날도 선물 안하는 아주 나쁜아이가 되고 말았다. 용돈이 풍족하다면 얼마든지 선물을 사다드릴수 있는데, 돈이 미워졌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난 어머니를 생각했다. 생각을 하지않으려 해도 자꾸만 자꾸만 초라한 어머니 생신이 생각나 하루종일 코가 찡했다.

방과후 집에 돌아 가면서 난 돈에 대한 원망을 했다. 돈만있으면, 돈만있으면 엄마웃도 구두도 사드릴수 있을텐데. 왜 우리집은 가난한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보니 어느덧 집앞 대문을 들어섰다. 조용했다. 그럴 만하다. 부모님 은 늘 일때문에 늦게 오시니까. 난 말없이 마루에 앉았다. 그런데 옆을보니 함지에 빨래가 수북 쌓여 있는 것이었다.

“내가 저 빨래를 한다면 어머니께선 좋아하시겠지? 그래, 빨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다. 난 괄뚝을 건어 붙이고 빨래를 빨기 시작했다. 너무 빨래가 많아서 힘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돕는다는 생각에 즐겁고 신이났다.

빨래를 다 한후 설것이를 하고 밥을 했다. 소여물과 개밥도 내가 다 해주었다. 내가 집안 일을 다하니 기분이 괜히 좋았다.

난 엄마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조금 후 어머니께서 지치신 몸과 함께 집에 들어 오셨다.

“엄마, 힘들셨죠? 그래서 제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했어요.”

난 자랑하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 께선 기특하신지, 호뭇해하시며 웃으셨다. 난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보아서인지 너무나 행복했다.

난 물질적인 요소들이 이세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사람이 부모님께 자동차를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시켜드린다 해도 난 부럽지 않다. 결코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비록 어머니께 물질적으로 선물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환한 웃음을 선물했다. 나의 진정한 마음으로…….



우정의 병문안

우천중학교 3년

홍 금 자

나에게는 내마음에 들지않는 친구에게는 무슨일이나 무관심하거나, 친구가 하는 말에 툭툭쏘아주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나와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오면, 나는 언제나 나쁜말로 툭 쏘아주거나 아주 거침없이 친구를 싫어하고 그 친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곤했지만, 그친구는 나에게 무시당하고 창피를 받으면서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뒤를 쫓아 다녔다. 나는 그 친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미웠고 왠지모를 자존심이 자꾸만 내가슴에 쌓여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14번째 맞이하는 생일의 아침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파랗고 들판의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었다. 그날 나의발걸음은 하늘을 걷는것마냥 가벼웠고 산들산들부는 봄바람이 나의 생일을 더욱 축하해주는 것만같았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 졌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날 아침부터 그친구의 얼굴을 보게되니 정말로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뒤로 돌아서서 발끝만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그 친구는 숨을 헉헉 거리며 뛰어와서는 나의손에 진달래꽃 두송이를 쥐어 주며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을 마치고는 교실뒤쪽으로 뛰어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너무도 놀라고 당황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지를 모르고 연분홍빛 진달래만을 쳐다 보았다. 진달래꽃잎에 조그만 이슬방울이 송알송알 맺혀있었다.

나는 교실로 들어와서 그진달래를 팽개치듯 국어책 속으로 밀어넣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나는 그일이 있은후에도 그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그 일이 있기 전보다도 더 그 친구를 미웠는지 모른다. 그래도 변함없이 그 친구는 나에게 진정한 우정으로 대했고 전보다도 나를 쫓아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외갓집에 가게됐었다. 일을 마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가 오지 않았다. 나는 걷다가 탈 생각

으로 걷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한지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차는 오지 않았다. 문득 앞을 보니 그친구가 이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친구와 같이 서있는 이길이 싫었다. 그래서 맞은 편으로 건너가려고 뛰기 시작했다. 그순간 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빨리 건너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뛰기만 했다. 그찰라 누군가 나를 미는것 같았다. 그리고 급정거하는 차소리가 들렸을뿐 아무소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뒤 내가 눈을 떴을때는 이미 저녁이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일어나려고 허리를 펴다가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다리를 절며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부축하시고 방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많이 아프냐고 물으셨다. 나는 내가 어떻게 집으로 왔냐고 어머니께 묻자 어머니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그게 무슨얘기냐고 묻자 어머니께서 모든걸 이야기해주셨다. 내가 길을 건너려고 달려올때 올시간이 지난 버스가 늦은 시간을 만회하려고 있는 속력을 다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한 그친구가 뛰어들어 나를 밀치고 나대신 그 친구가 그차에 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문을 박차고 달려나와 친구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다. 오른쪽 다리가 끊임없이 아파왔지만 친구를 생각하며 더욱 속력을 내서 달려다. 병원입구에 다다랐을때 옆산 모퉁이에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없이 꽃을 꺾었다. 꽃을 한아름 꺾어가지고 병원으로 갔을때, 그친구는 나의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는데..... 나는 그뒤 그 친구가 나올때까지 계속 병문안을 다녔다. 그렇게 지겹고 따분한 병문안이 이렇게 뜻있고 기분좋은 것인줄은 예전에 정말 몰랐다. 더욱 두터운 우정을 쌓게 했던 그 병문안을 나는 절대로 잊을수가 없다.



어떤 만남

안홍고 3년
김 미 숙

“우리 딸 학교에서 돌아왔나?”

“내가 왜 아저씨 딸이에요? 난 싫은데...”

이산 저산 불이 붙기 시작한다. 어찌다 눈길을 돌릴라 치면 나도 모르게 주춤하며 먼 산을 주시한다. 유난히도 붉은 진달래 빛이 작년에 그렇게 떠나신 아저씨를 그리게 한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뒤흔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몽땅 훔쳐가신 분.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기위해 활짝 열어 놓은 식당 문 사이로 땅딸한 키에 유난히 큰 얼굴, 담뱃 피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신 벌아저씨께서 들어 오시면 의례

“우리 딸 어디 갔어? 어휴 우리딸.”

그 굵직한 목소리로 나를 찾으신다. 처음엔 우리 집이 식당을 하는 탓으로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소리가 짜증스럽고, 그냥 받아 들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화를 내실것 같아 언제부터인가 벌아저씨를 미워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짜증을 냈다.

“숙아, 아빠라고 한번만 불러 볼래?”

“제가 왜 아저씨께 아빠라고 불러요?”

“숙이는 친구 아빠에게도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보지? .”

“물론이죠. 내게 아빤 오직 한분이고 그 분이 지금은 안 계시니 이젠 어느 누구도 나의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어느날, 아저씨와의 짧은 다툼이 끝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됨을 어쩔 수 없었으며 그 벌아저씨의 작은 체격은 밑으로 쳐져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후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벌아저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내가 얻은 것이라곤 엄마의 끝없는 꾸중뿐……. 그리고 짧았던 내 생각에 가해지는 체찍의 아픔뿐…….

몹시나 지리한 장마의 시작이다. 시퍼렇게 찌르는 번개, 종말을 알리는 듯 우렁찬 천둥 소리, 하루 이틀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장마때면 의례 나가는 전깃불. 어쩔 수 없이

성냥불과 함께 파르르 떨리는 촛불을 말없이 주시하는 밤, 갑자기 굳게 닫힌 식당 문이 삐걱거리며 그 동안 안 보이셨던 별아저씨께서 미소를 띄우시며 흠뻑 젖어 들어오신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창피한 마음도 있고 해서 똑바로 아저씨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수건만을 말없이 건네 주었다. 대충 닦으신 아저씨께서 나에게 잠깐 얘기를 하자며 의자를 건넸고 의자에 앉은 나는 그후 대단한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했다.

아저씨께 아들만 넷이 있다고 한다. 물론 딸도 1명 있었지만……. 유난히 바랬던 딸이라 오히려 아들을 아끼는 이상으로 당신은 그 딸을 아꼈고 사랑했지만 심한 병으로 지금은 세상에 없고…….

그런데 그 딸의 이름, 성격, 생김새가 나와 너무 닮아 처음엔 당신의 딸이 환생이라도 한 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내 실수가 너무 컸다는 걸 느꼈단다. 오히려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아들들에게 소홀히 한 점이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들게 하더구나. 속아, 네가 정말 부럽구나,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예쁘고, 착하고…….”

“…….”

“미안하다. 네게 너무 아저씨의 나쁜면만 보인 것 같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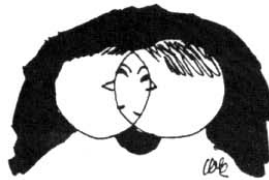
아저씨가 나가신 빈 의자 위엔 흰 수건만이 놓여 있었고, 그날 밤 내가 흘린 아픔은 장마 비보다도 더 큰 고통을 남겨 놓았다.

마지막 아카시아 내음이 내 코 끝을 스쳐갈때 허전하게 비어 있는 골짜기마다 아저씨의 미소가 가득 가득 남아 있는 것 같아 꽃놀이를 갔다가도 주춤 뒤돌아 보게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풀피리의 흥겨움이 바람에 섞여 꽃잎에 앉고, 어디선가 별아저씨의 채취가 땀도는 것 같아 기다림을 자아낸다. 어쩌면 별아저씨와의 만남속에 아빠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의 정이 되살아나 그분을 미워했는지 모른다.

곧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면 아저씨의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 올 것이고, 작년의 그 골짜기에 오늘도 꽃이 만발하길 간절히 빈다.

푸른 바람 속에 핑크빛 그리움을 실어…….



가을날의 소나타

횡성여고 2년
김 남 희

채 익지 않은 풋사과의 향긋한 내음에서 가을을 느끼던 때는 어느덧 지나가 버리고 누렇게 채색되어 버린 낙엽들이 우리의 발 밑에서 뒹굴어 다니는 가장 쓸쓸하고 아름다운 시간!

애수와 그리움으로 뒤범벅된 공기들이 허공을 헤매다가 드디어 우리의 가슴으로 스며들어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시큼하게 울려주던 어느 가을날!

나는 두 친구의 따뜻하고 고마운 손길에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다.

그 두 친구는 석가모니 보다는 더 자비로운 손길, 예수보보다 더 고운 사랑의 손길로 가을을 몹시 닦던 나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나는 그 두 친구로 하여금 쓸쓸하고 고독한 가을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화창한 가을 날이었다는 건 짐작할 수 있다.

난 성격이 툭고집이래서 친구가 별로 없다. 아니 진정한 친구는 단 한명도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난 성격이 무척 골다. 해서 친구들은 나를 무서워하고 학교 규칙 같은 것을 엄격히 지키는 날 누구나 어려워했다.

그렇게 나를 멀리하는 친구들을 보고 난 한없이 울기도 했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며 내 성격을 고칠것을 나 자신에게 요구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한없이 허무하기만 하던 어느날, 한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다.

“남희야! 이따 점심 시간에 나하고 옥상에서 밥 같이 먹자, 찬성하지?”

“- 응응~”

난 무척 얼떨떨해 하며 대답을 했다.

학급 간부직을 맡고 있어서 친구들과 얘기는 해 봤지만 공적인 일을 빼 놓고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지 나또한 친구들을 대하기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어색하기만 했다.

그날은 오전 수업 시간내내 ‘친구가 왜 나하고 옥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 오지가 않았다. 소위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하는 식이 되어 가고 있었다.

드디어 의문의 점심시간!

나는 얼른 도시락을 들고 창문을 타넘어 옆옥상으로 갔다. 화창한 가을 햇볕이 나의 미간을 간지럽혔다.

나는 옥상 끝으로 가서 그 친구와 앉았다. 거기엔 또 다른 친구도 있었다.

그 친구들은 참쌀떡처럼 매일 붙어 다니는 나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왜 붙었어?”

그 애들은 웃으면서 도시락을 풀었다.

“우선 밥 부터 먹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그 친구들은 간단한 기도를 한 다음 맛있게 도시락을 먹었다. 나는 그 애들의 줄어드는 도시락을 그저 의문에 찬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정도 도시락을 먹고나자, 한 친구가,

“우리가 오늘 널 부른 건! … 야! 니가 해라.”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빼냐!”

하며 그 친구들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다름이 아니고, 남회야! 너 친구 없지? 어제 네가 나한테 하는 친구얘기를 듣고 우리 둘은 어제 의논을 아주 많이 했어. 그래서 결론은, 널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로 만들기로 했어. 넌 어떠니?”

“나, 나안… 너무 고마워. 사실 난 요즘 친구가 없어서 무척 괴로웠는데…”

난 그만 할 말을 잃고 그저 조용히 앉아 예수도 석가모니도 아닌 그 누구에겐가 깊이 감사드리고 있었다.

“남회야, 우리 둘과 친해 지려면 우선 조건이 있어. 지킬 수 있니?”

“응”

난 얼른 대답했다.

“첫번째는 늘 웃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우리 셋이 다 같이 회노예락을 나누어야 한단다. 할 수 있지?”

“그럼, 난 철저히 그 조건을 지킬거야, 오늘 너무 감사해. 난 오늘로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야. 너무 너무 고마워.”

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이 시간! 나와 그 친구들은 무척 친한 친구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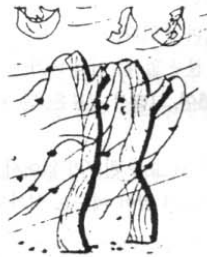
친구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예전엔 몰랐던 기쁨과 진리를 맛 볼수 있었다.

지금 내가 그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때와 변함없이 고맙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윤정, 정희-

한 없이 불러보아도 늘 아름다운 친구. 외롭던 가을날의 소나타와 같이 언제나 잔잔한 이름들이다.

사랑해-



1990년도 문화사업 실적현황

1. 미술전시회 개최 (그림샘)

- 일 시 : 1990. 2. 17-19(3일간)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 작품량 : 30점
- 참관수 : 420명

2. 민속웃놀이대회 개최

- 일 시 : 1990. 2. 22 10:00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 참가대상 : 황성군 주민
- 참가자수 : 1. 단체전 9개팀 45명
2. 개인전 73명
- 시상내용 : 1. 단체전 3개팀
2. 개인전 5명

3. 여성교양강좌 개최 (읍면순회)

- 일 시 : 1990. 3. 8-12(4회실시)
- 장 소 : 읍, 면회의실
- 참가대상 : 새마을부녀회원
- 참가자수 : 375명
- 주 제 : 건전가정과 자녀교육

4. 제 5회 청소년 백일장 개최

- 일 시 : 1990. 4. 21 14:00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및 보조장소
- 참가대상 : 군내초, 중, 고학생
- 참가인원 : 617명

- 시상인원 : 1. 초등부 박설화의 18명
- 2. 중등부 조정숙의 3명
- 3. 고등부 김미숙의 2명

5. 효행학생표창 (사례발표)

- 일 시 : 1990. 4. 26 14:00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 후보자수 : 18명
- 표창자수 : 3명 황성여고 권혁선
 서 원 중 안상용
 대동여중 조은화

6. 제 9회 어린이 동화대회 개최

- 일 시 : 1990. 5. 12 14:00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 참가대상 : 군내 국민학교 학생
- 참가지수 : 12명
- 시상자수 : 3명 덕고국교 김은화의 2명

7. 제 9회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

- 일 시 : 1990. 5. 19 14:00
- 장 소 : 황성전천교 제방
- 참가대상 : 황성군내 초, 중, 고 학생
- 참가지수 : 878명
- 시상자수 : 1. 초등부 용둔국교 한정예외 57명
 2. 중등부 우천중학교 한민규외 12명
 3. 고등부 황성여고 이민자외 5명

8. 제1회 단오절 씨름대회 및 그네뛰기대회 개최

- 일 시 : 1990. 5. 28 10:00
- 장 소 : 섬강유원지 광장

- 참가대상 : 황성군내 주민
- 참가자수 : 1. 씨름부-단체 9개팀 45명
2. 그네부-개인 38명
- 시상자수 : 1. 단체상- 1 등 8837부대
2 등 청 일 면
3 등 황성읍
개인상- 1 등 백남권
2 등 이병권
3 등 조병문
2. 그네상- 1 등 강영자
2 등 한옥순
3 등 사은자

9. 90년 하계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 일 시 : 1990. 8. 6-9(4일간)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 참가대상 : 군내초, 중, 고 학생
- 참가자수 : 327명
- 주 제 : 1. 경료효친사상과 효생활
2. 향토사
- 강 사 : 김정기, 한창일

10. 황성문화관 개관 기념 음악회 개최

- 일 시 : 1990. 10. 18 17:00
- 장 소 : 황성문화관
- 참관대상 : 관내 중, 고 학생 및 일반주민
- 참관자수 : 630명
- 음악회내용 : 원주청소년 교향악단 초청 교향악 연주(52명)

11. 황성문화관 개관기념 미술전시회 개최

- 일 시 : 1990. 10. 18-20(3일간)

- 장 소 : 황성문화관 전시실(1층)
- 참관대상 : 관내초, 중, 고 학생 및 일반주민
- 참관자수 : 1,475명
- 전시작품수 : 32점

12. 황성문화관 개관기념 사전전시회 개최

- 일 시 : 1990. 10. 18-20(3일간)
- 장 소 : 황성문화관 전시실(2층)
- 참관대상 : 관내초, 중, 고 학생 및 일반주민
- 참관자수 : 1,430명
- 전시작품수 : 47점

13. 경로효친생활 체험수기 공모시상

- 일 시 : 1990. 12. 1 14:00
- 장 소 : 황성문화원 강당
- 참여대상 : 군내 초, 중, 고 학생
- 참여자수 : 143명
- 시상자수 : 1. 초등부 황성국교 박혜선의 12명
2. 중등부 우천중학교 엄주현외 2명
3. 고등부 황성여고 진경미외 2명

14. 발간사업

- 향토사료집 발간 : (7월과 11월)2회 2,000부
- 어 사 매 : (향토문예지)7호발간(12월) 1,000부

임 원 명 부

직책	성명	주소 및 직장	전화번호	비고
원장	한중희	한중희 치과의원	43 - 2579	
부원장	김정기	횡성읍 마산리	43 - 4360	
임원	이연승	횡성군 교육청(입석리)	43 - 2831	
임원	권용환	대동여자중학교	43 - 2632	
임원	유장희	횡성읍 읍상리(미탄중교)	43 - 2352	
임원	김명수	횡성읍 읍상리	43 - 2549	
임원	이병현	횡성읍 입석리(서원국교)	43 - 2874	
임원	박순갑	둔내면 자포곡리	42 - 1024	
임원	정재영	횡성읍 읍하리(청일국교)	43 - 3326	
임원	이관술	횡성읍 읍상리	43 - 3344	
임원	박충원	횡성읍 읍상리	43 - 3221	
임원	도회관	횡성읍 읍하리	43 - 2376	
임원	홍재욱	횡성읍 읍상리	43 - 2246	
임원	함소훈	횡성읍 읍상리	43 - 2636	
임원	이종성	공근면 학담리	42 - 3225	
임원	조경택	횡성읍 읍상리	43 - 2742	
임원	김상원	횡성읍 읍상리	43 - 2796	
임원	민인기	두산농산(곡교리)	43 - 3396	
임원	김정웅	횡성읍 읍상리	43 - 2707	
임원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43 - 2404	
임원	이상천	횡성읍 읍하리	43 - 2607	

편집후기

대학은 커녕 전문대학 하나 없는 시골 군에서 문화의 뿌리를 내려 보겠다고 책을 만든지 어언 일곱번째 “어사매” 7집을 내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돈 벌이에 능력 있는 분들은 돈을 벌어 성공했으나 문화에 돈 쓰기를 덜 좋아하고 글쓰고 책 만드는 마음의 꿈을 펼쳐내는 분들은 가난하다.

이런 사회의 모순 속에 “7호”의 문예지를 내는 우리들의 마음은 기쁘다.

비록 돈 없고 힘도 세지 못하나 미래의 세대를 위해 보람을 일구어 보려는 우리들의 뜻을 이해하여 옥고를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책을 만들고자 다짐해 본다… [편집실]

편집위원 김정기·이병현

이연승·정재영

권용환·한창일



문예지“어사매”원고 모집공고

1. 모집기간 : 1991. 4. 1-7. 31(4개월간)
2. 모집내용 : 시, 수필, 산문, 동요, 동시, 소설, 기행문, 만화, 한시, 논문, 향토사료(지명유래, 전설, 세시풍속, 향토인물) 기타
3. 제 목 : 필자 자유 선택
4. 원고제출처 : 황성읍 읍하리 191-1번지(황성문화관내) 황성문화원 어사매 편집실
5. 시 상 : 각 분야별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함
최우수상 1명 상패 및 상금
우수상 2명 “
장려상 3명 “
6. 심사위원 : 원고 제출자에게 차후 개별 통보함
7. 입상통보 : 심사후 입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황성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군민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의 많은 응모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황성문화원 어사매편집위원회
위원장 한 중 회

잡은가 잡은가 잡은가

어사매

인쇄일	90. 12. 25
발행일	90. 12. 30
발행처	횡성문화원
발행인	한 중 희
인쇄	원주신문사

(비매품)

